MAY 2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38~1139 1983년 5월20일(금) & 2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May 20 & 21,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갈보리 한인자선재단, 양로원 건설계획

독자적으로 추진중

캐네디언 독지가 갈보리교회에 부지 기증

갈보리교회(목사 안병한)의 양로원건립추진단체인 갈보리한인자선재단(CKCF)은 지난3월4일자로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로 부터 동 재단이 추진하는 노인아파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동건이 84년 차관지급 대기명단에 들어있음을 확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KCF의 김대억대표와 안병한사무장은 또한 캐네디언 득지가가 최근 양로원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약 7에이커 대지를 갈보리교회에 기증했다면서, 법적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에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지는 워든(Warden)서쪽, 스틸즈(Steeles)남쪽에 있는 공터중의 일부이다.

좀년2월 창립된 갈보리한인자선재단은 현재 경비 1,350만달러의 노인아파트 • 호스텔300개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재단이 CMHC에 신청한 서류에 따르면 노인아파트는 2베드룸짜리 20개, 1베드룸 175개, 장애자를 위한 아파트 5개로 되어있다.

동 재단은 CMHC로 부터 연2%의 장기저리융자를 받아 노인아파트를 지어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노인아파트의 영구적운영권만 가질뿐 재산처분권은 갖지 못한다.

동 재단의 집행부는 대표 김대억, 재무 정범천, 국장 안병한·심의팔·신성전, 총무 안병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보리교회는 2년전 맥코완과 스틸에 8에이커의 교회부지를 구입했으며, 부지 재산세만도 년간 수천달러라고 김대표와 안총무가 밝혔다.

갈보리교회측은 지난3월중 있은 한인회 추선의 양로원건립운동일원화 모색 대화의 자리에 2회 불참, 와이즈멘클럽이 모체인 전 한인양로원 건립위와 동부장로교회 교인들이 주체가 된 양로원건립위와의 통합운동에서 제외됐었다.

통합에 성공한 양측은 각각 진행시켰던 CMHC 융자신청등 제반수속을 일원화했다.

한인양로원건립위측의 한 담당자는 "갈보리측의 작업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 축하할만한 일이며, 그로 인해서 한인위측의 작업에 지장이 생길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에트닉민족중 많은 단체가 CMHC에 융자를 신청, 아무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단체가 다 혜택을 받은 민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의 대북한태도 면밀히 주시

일본외상 방일중인 북한대표단과 접촉

(서울19일=연합)한국정부는 아베·신따로 일본외상이 현재 도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법사협회의원회(AALCC)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단과 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또한 일본외무성의 후지이·아끼히로참사관이 일본은 도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남북한을 동시초청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관심과 우려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대표단의 AALCC 참석은 북한정부대표단의 첫 공식 일본방문이며, 일본외상이 북한대표와 접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같은 최근 사태와 관련, 야기될지도 모를 한·일간의 오해를 막기위해 도꾜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의 대북한 태도는 변함이 없으며, 독지이참사관의 발언도 약간 왜곡 보도된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본외상은 주한대사관을 통한 서한에서 AALCC의 주최국으로 리셉션에서 참가국인 북한대표단을 만나 대회하는 것은 통례이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일본의 대북한정책이 변화했다는 암시가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계관측통들은 이같은 일본측의 대북한 태도변경은 중공기 납치사건으로 한국과 중공이 직접접촉을 가진데 자극을 받은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토론토 블리자드(Blizzard)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달려 붙고있는 시카고 스팅의 센터·백 조영증선수(왼쪽)

관계기사 2면

◀휴간안내▶

23일(월)은 빅토리아·데이(Victoria Day) 공휴일이므로 다음날 24일짜는 휴간합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4.70원
CN$1.00 = US81.25센트
금(런던) = $545.51
은(토론토) = $16.71/oz.

김대중씨 회견

〈편집자주〉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대중씨는 지난14일 하오 숙소인 다운타운 힐튼호텔 1684호실에서 LA지사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미국생활적응에 대해 이모저모를 털어놨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대중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후 교포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다. 오른편은 차남 홍업(34)씨.

정치인·종교인은 人權문제 관심가져야
미국생활 답답 하루빨리 故國가고 싶어

유럽國서도 招請…준비되는대로 LA도방문

●미국에 온지 5개월째된 지금 미국생활에 대한 느낌은?

○한마디로 답답하다.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무엇인가 조국에 두고온 심정이다. 하루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

●건강은 어떤가? 미국병원에서 진찰결과가 나왔는가?

○좌골신경통 문제이외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내자신이 큰통증을 느끼지 않기에 수술문제도 고려치 않고 있다. 다만 오래 걸으면 힘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조금 고통을 느낀다.

●현재 미국에 차남및 막내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녀문제는?

○부모들 누구나 같은 심정이겠지만 나때문에 그들이 공부에 지장을 받은 것이 마음아프다. 그러나 오는 9월에 막내아이는 애틀란타시에 에머리대학에 입학하기로 했으며, 차남은 워싱턴대학교의 영어코스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에서 연설을 해왔는데 LA에도 올 계획이 있는가?

○무엇보다 미주최대교포사회인 LA코리아타운을 가보고 싶다. 초청받은 입장인 관계로 현지 초청자들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혹시 미국도시이외에 다른 외국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내 여권은 미국만 여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국가중에서도 초청이 오고있으나 고려중이다.

●하바드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통해 저술활동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집필중인 것이 있는가?

○물론이다. 지금쓰고 있는 것은 「옥중서간」인데 아마도 7월이나 8월께 출간될 것 같다.

●귀하가 펼치고 있는 것은 인권운동인가? 정치운동인가?

○정치인이나 종교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는 종교적양심에 따른 정치인으로서 조국에 봉사하고자 하는 신념속에 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정권쟁취나 특정정당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귀하에게 강연회나 기타 연설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와같은 충고에는 당연히 반대한다. 하느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미주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달성됐을때 해외교포로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교포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미국사회에서 개성있는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위해서는 2세들이 한국어를 바르게 쓰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것을 뿌리로 지니지 못하고 미국사회에서 전문인이 되더라도 그것은 미국인 흉내를 내는것 밖에는 안된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불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B.536-1692
R.245 3539

현 영 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B.Com.,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대리점
란콤화장품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혀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교민을 위한 교민의 은행

회환은행장미적금 안내

기 간	계약액	월부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6.07	506.07
	1,000	162.88	12.14	1,012.14
1년	500	39.68	10.99	510.99
	1,000	79.36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14.84	514.84
	1,000	51.68	29.68	1,029.68
2년	500	18.92	17.93	517.93
	1,000	37.84	35.86	1,035.86

가장 높은 이자율 13.97%
●500불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입니다

영업안내
ㅁ 체킹구좌업무〈개인, 기업〉
ㅁ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ㅁ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ㅁ 외환송금업무〈전신, 우편송금〉
ㅁ 수출입〈신용장 개설, 통지, 매입〉
ㅁ 대출업무〈개인융자, 사업자금〉
ㅁ 모기이지〈주택구입, 부동산투자〉
뱅쿠버지점 9월중에 개점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한 —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C.D.I.C.가입은행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블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뱅쿠버지점
ONE BENTALL CENTER #760
505 BURRARD ST. VANCOUVER
(임시) 683-1820

블리져드축구팀 패배

조영증선수 소속한 시카고 스팅팀에

18일 익스비션·스태디움에서 야간경기로 열린 북미축구리그(NASL) 토론토 블리져드(Blizzard)팀과 한국의 조영증(29)선수가 소속한 시카고 스팅(Sting)팀과의 대전에서 연장전끝에 시카고가 2-1로 승리했다.

양팀은 바람이 불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중 5,200여명이 관전하는 가운데 열전을 벌였다.

백넘버 5번을 달고 센타·백 포지션을 맡은 조선수는 완벽한 수비로 시종 공격해 오는 블리져드 공격진을 차단했다.

전반 종료8분에 시카고의 마들필드 한스·와이너선수가 슛을 성공시켜 선제점을 올렸다.

전반전에서 시카고 빅터·노궤라골키퍼는 맹공격하는 블리쟈드의 결정적인 슛을 6회나 선방했다.

후반전에 접어들어 양팀은 서로 수차례 슛팅을 날렸으나, 무위로 그치다 후반 16분만에 주전 파스쾰·멜루카선수 대신 기용된 토론토의 제프·웨걸리선수가 득점 1-1 타이를 이뤘다.

전후반 15분씩의 연장전에 들어간 양팀은 전반에는 모두 득점을 못냈으나, 후반 13분여만에 스팅의 포오드 파토·마제틱선수가 땅볼로 튀어오는 볼을 가볍게 차넣어 득점, 결국 2-1로 승리를 안겼다.

게임후 본지기자와 만난 조영증선수는 "시카고팀에는 6개월전에 입단, 현재 연봉8만불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 NASL 베스트 11에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조선수는 이번 토론토방문은 갑작스런 스케줄로 오게되어 미리연락을 취하지 못했으나, 6월12일 다시 오게됨으로 그때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수는 원래 소속되었던 포트랜드팀에서 2년계약, 2년 옵션으로 입단해 선수생활을 계속했으나, 동팀이 82년도에 재정난으로 해체되자 시카고팀에서 스카웃, 같은 조건으로 이적했다.

스팅팀은 81년도 NASL 우승팀이다.

작년도 토론토원정을 위해 광고와 선전만 하고 막상 시합때는 출전을 못한 것은 출전직전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 코취가 여행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토론토에 년1-2회 오게된다고 말했다.

조선수는 미국에 오기전 약7년간 국가대표팀 주역을 담당했으며, 79년 5월에 결혼, 2녀를 두고 있다.

현재 시카고에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날 스타디움에는 갑자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광남 축구협회장, 조기연 실협부회장, 정형택씨등이 나와 응원을 했으며, 게임후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관에 초청, 한국음식을 나눴다.

스팅팀은 19일 새벽 시카고로 떠났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37>

노파의 증언 ⑧

마인은 X에대해 미묘한 감정느껴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히군。 그럴수가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직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게 뭐지?』

『꿀단지입니다。 왕일문이 어머니에게 사다준 걸 몰래 가져왔죠。 여기에 그의 지문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X의 지문과 대조해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헛수고한 셈이죠。』

그는 가방을 닫았다。

『자네가 그걸 본부까지 직접 가져갈 셈인가?』

『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읍니다。 제가 직접 가져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빠르고 안전합니다。』

『나는 어떡 하게?』

『우리는 여기서 작별해야될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겠다는건가?』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김형사는 착잡한 표정으로 마인을 쳐다보다가

『몸조심해』

하고 말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일어나셔야죠。』

김형사가 얼른 손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인은 그가 손을 놓을 때까지 서있어야 했다。

『나는 틀렸어。 이제 이 생활도 마지막이야。』

『원, 무슨 말씀을…』

김형사는 손을 놓고 아쉬운듯 마인을 바라보았다。

한 시간 후 마인은 상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 조금 지나서였다。

해장국을 먹고나서 그는 곧장 센터로 달려갔다。

朴 男 그림

11시에 꿀단지에 묻은 지문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는 다섯개의 서로 다른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X의 것과 일치했다。

대머리는 보고를 받자 허리를 틀어대며 웃어제꼈다。 한참 기분 좋게 웃고나서 그는 마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인터폴도 밝혀내지 못한 X의 신원을 자네가 밝혀냈어。 이건 정말 기록될만한 일이야。 정말 놀라운일이야。 마형사는 정말 우수한 수사관이야。 이건 우리 경찰의개가야。』

즉시 수사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인터폴 요원들도 참석했다。

그들은 X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하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대머리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그는 금방이라도 X를 체포할 것 같이 큰 소리쳤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X의 과거와 함께 그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것뿐이지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놈이 한국 출신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야!』

대머리는 눈을 부라렸다。

마인은 X에 대해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한번도 보지 못한 그에 대해 증오감 같은 것이 일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왜 킬러가 됐을까。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놈을 우리 손으로 체포해야해…』

태권도 국가대표팀선발전

캐나다50여도장에서 100여명참가

(위니펙=배영규·이태은지국장 특별취재)세계태권도연맹산하 캐나다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캐나다국가대표팀 선발전이 지난14일 마니토바주 위니펙소재 이암도장 주관으로 세제임스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

게임전날인 13일에는 국가제 1·2·3급 공인 심판자격취득을 위한 세미나후 소정시험을 거쳐 15명의 새로운 공인태권도 심판이 배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현 캐나다태권도협회장인 로이드·프랜시스 하원부의장과 대사관의 박춘식 참사관이 참석, 격려를 했으며, 전국50여도장에서 국기원유단자 100여명이 출전했다.

이번 선발된 10체급의 대표선수는 오는 10월19일 부터 2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한다.

캐나다태권도국가대표팀 :

1.핀급 : 가이·빈센트(위니펙, 이암도장)

2.플라이급 : 죠니·아도나(몬트리올, 이종수도장)

3.반탐급 : 아말릭·도샤니(샤야, 글만래핀도장)

4.페더급 : 레이먼드·무라드(몬트리올, 이종수도장)

5.라이트급 : 아슬리·캐스타네다(몬트리올, 이종수도장)

6.웰터급 : 장·클라드·모리스(몬트리올, 이종수도장)

7.라이트미들급 : 죠·탄그레디(몬트리올, 이종수도장)

8.미들급 : 제리시·통(몬트리올, 이종수도장)

9.라이트헤비급 : 에비랄드·리히트(뱅쿠버, 오영국도장)

10.헤비급 : 다렐·헤네건(몬트리올, 이종수도장)

품세남자부 우승 : 폴·캐니악(위니펙, 조의용도장)

품세여자부 우승 : 캐더린·날레파(샤야)

유년부겨루기 우승 : 이재훈(이암도장)

최우수선수상 : 다렐·헤네건(몬트리올)

최우수코취상 : 이종수사범(몬트리올)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총재상 : 이암사범

◆로이드·프랜시스 캐나다 태권도협회장이 헤비급 헤네건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한인합창단 자선음악회

28일 하오8시 메트로·폴리탄연합교회

한인합창단(지휘 박재훈, 단장 문남귀)의 아프리카선교기금지원 자선음악회가 캐나다교회협의회(The Canadian Council of Churches)주최로 오는 28일(토) 하오8시 메트로·폴리탄연합교회(51 Bond St. Tor.,)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유회자박사의 올갠반주, 고도경씨의 피아노반주가 곁들여진다.

연주는 1부에서 합창, 몽금포타령, 새타령등의 한국민요와, 소프라노 송경란씨, 테너 유인씨의 이중창으로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파스·칼르중에서 1곡, 이주연씨 독창으로 박재훈곡 "내주를 찬양하리"와 합창으로 박재훈곡 성마가수난곡의 마지막곡인 "We Believe"등이 엮어지며, 2부에서는 비발디곡 〈글로리아〉전곡이 연주된다.

〈글로리아〉독창자로는 석경재, 이혜련, 신영자씨등이 출연한다.

연주회 티켓은 성인7달러, 학생·노인및 실직자는 3달러이며, 문의는 921-3616이나 한인합창단 단원에게 하면 된다.

이번 음악회는 캐나다앵글리칸교회, 장로교회, 연합교회, 제자교회등 4교파의 합동후원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한인합창단은 제3회 헨델의 〈메시야〉공연을 오는 12월9일 하오8시 로이·톰슨에서, 12월3일 디트로이트에 각각 가질예정이다.

에트닉청소년 패싸움

포르투칼계와 동양계 50여명

포르투갈계와 동양계 청소년 약 50여명이 18일 밤 패싸움을 벌려 적어도 4명이 부상하고 1명이 치안방해죄로 기소됐다. 메트로경찰 제14디비전의 존·미첼경위는 칼, 야구방망이, 쇠막대기 등을 동원한 패싸움이 이날밤 9시경 더퍼린과 고든·스트릿의 맥코믹공원(McCormick Park)에서 벌어졌다고 밝히면서, 에트닉 청년들간의 패싸움으로 그동안 양파간의 복수전이 계속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동양계학생들이 칼로 등을 찔려 토론토 웨스턴병원으로 옮겼으나 중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포루투칼계의 갱단은 30-40명, 동양계의 갱단은 20-3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수난기의 남편들 ②

김보경 (심리학박사·[illegible]정신병원근무)

◆김보경박사

세째, 남편이 수난을 당할만한 또 하나의 조건은 아내감을 한국에서 데려와 결혼하거나, 또 반대로 캐나다에 미리 와서 살던 처녀가 남자를 초청해서 결혼하는 소위 「소포결혼」의 경우인데, 처녀를 데려오는 경우 신랑감이 서양에 산다는 조건 때문에 처녀의 인물이나 학력이나 가정배경이 자기보다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고, 또 이는 경우에 따라 나중 신랑이 신부에게 업신여김을 받을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신랑이 한국서 오는 경우, 서양물을 먹어 남편 존경할 줄 모르고, 거기다가 영어 못하고 촌스럽다고 무엇하면 핀잔 주는 색시가 미워지기 마련인 것이다.

네째는, 말할 나위도 없이 비교적으로 남녀동등을 창조하는 서양사회 제도이다. 부부는 종속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가 강조되다 보니 잘못하다 보면 자식도 재산도 쉽게 여자에게 빼앗길 것같은 마음이 나는 것이고, 그러한 실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조건은 남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위협감을 주고, 의처증을 야기시킨다. 아내의 일거일동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가 없는가를 발견하려 애쓰고, 때로는 아내를 테스트해 보기도 한다.

"내가 생선회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당신은 한번도 만들어준 일이 없어!!"

라는 역정을 부려놓은 다음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기도 하고,

"집이 지저분해!"

라고 말한 후, 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게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이 아내가 아직도 자기를 공경하고 있구나라고 느낄만큼 속시원스런 반응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우선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도 바라는 소위 현모양처가 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 일은 똑같이 소처럼 하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기대는 남편이 직장 갔다오면 청소해 놓고, 밥지어 놓고, 예쁘게 화장하고 가방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것이고, 아내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함으로써 아내를 판단하려고 하니 실망이 파중될 것은 너무나 빤한 것이다.

물론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지금껏 일하고 들어왔어도 자기는 샤워나 하고 TV 틀어놓고 소파에 비스듬이 누워 신문이나 뒤적거리면서 밥하고 애들 돌보기 바쁜 아내에게

"거 맥주나 우선 한병 주고 하시오."

하고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내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남자대장부 스타일은 성질대로 한다면은 자기가 냉장고 열고, 맥주를 자기 손으로 부어 마시고, 때론 아내 바쁜데 청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위신을 잃는 것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수도 많은 것이다.

확실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이민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일 부담량을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30퍼센트 정도는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서양가정에 있어서 집에 머무는 주부와 직장에 다니는 남편간의 일부담량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기준해서 그렇게 추측한 것이다.

아내의 노동량을 쉽게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가게를 경영하는 경우, 아내를 한달간만 휴가보내고 아내 대신 헬퍼를 하나 쓰고, 그밖의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레슨 보내고 세탁하고하는 일을 엑스트라로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남자가 대신해볼 수 없는 일은 한달에 한번씩 배 아픈 일이며, 임신하고 아이 낳는 일 등인데,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강인하니까 그렇지, 보통남자들은 여자 일 다하기가 힘드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하여간 남편이 이모저모로 수난을 당하고, 이 수난은 병적인 의처증까지 야기시켜 자기자신을 괴롭힐뿐아니라, 가정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남편이 가장 피로움을 받는 심리적 현상은 자기 가정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증이다. 남자란 숫사슴이 풀 많고 물좋은 곳으로 암사슴, 자식사슴을 데려다 배부르게 하면서 자기는 다른 짐승이 자기 식구를 해치지나 않을까 하여 고개를 번쩍 들고 당당히 뻗치고 있을 때 오는 보초와 투지와 긍지에서 희열을 느끼며 사는 동물이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처자식 굶길 사람은 아니오."

라는 말 속에 숫사슴의 긍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민생활은 남편들에게

"당신 없어도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것같은 태도를 아내가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남편의 분통을 깨는 것이다. 실로 남성들이 봐도 여성들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 아니라, 때로 여성들이 훨씬 잘한다.

이런 현실에서도 「내가 이집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려니 여자의 흉을 잡아야 하고, 엎드려 절 받기를 해야 하고, 공갈을 쳐야 하고, 때론 주먹을 휘둘러야 한다.

남편이란 본래 처자식을 위해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분뇨통도 멜 수 있는 가장 희생적인 사람들인데, 이제 세월이 좀 좋아졌다고 "당신이 뭐 잘났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니 그 희생과 보호의 본심이 의심과 질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계속)

파산위기 모면

C채널 페이TV

(캘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루는 페이TV C채널의 사장 에드가·코완씨는 80시간 마라톤모금 방영덕분으로 파산위기는 모면했다고 말했다.

코완씨는 16일아침에 끝난 마라톤 모금으로 4천여명의 새 시청자를 확보, 방송을 계속할 만한 새 자금이 모아졌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청료를 25%~35%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우회 야유회

토론토동우회(회장 서명식)는 금년도 회원가족야유회를 오는 7월9일 아침10시 스카보로 모닝사이드·팍에서 갖는다.

경로잔치를 겸한 야유회에는 예년과 같이 통돼지 2마리를 바베큐하며, 어린이들, 노인들을 위한 많은 프로를 준비한다.

Joiner of Amigos for Joy of Arts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순간들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으시렵니까…?

저희 JOA Studio는 Wedding Photo, Video Specialists로 여러분의 Wedding이나 각종행사 등을 오래오래 생생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사진이나 Video Tape에 담아 드립니다.

Best Quality Best Service
Satisfaction Guaranteed

「PHOTOGRAPH」
- Top Quality Studio Camera
- Special Effect Included
- Studio Portrait
- Video Analysis
- Variable Options

「*VIDEO」
- Many years of experience
- Best Camera & VCR used
- Auto music dubbing
- Both Format(VHS, Beta)
- Edited Tape

40 GODSTONE RD. #1204
WILLOWDALE 499-3893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샘플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이나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조영훈 299-4223
정재호 499-3893
윤성선 424-2082

JOA Studio
231-5351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불꽃놀이(FIRE WORK)
SPECIAL 40% OFF

VICTORIA DAY(5월23일 월요일)를 대비하여 가장 다양한 FIRE WORK을 대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단, CASH & CARRY인 경우 5% 더 감해 드립니다.)
편리를 도모코저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VICTORIA DAY에도 영업합니다.

5월21일(토) 8AM~1PM
5월22일(일) 8AM~2PM
5월23일 (VICTORIA DAY) 8AM~3PM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테니스戰國時代 올해의 세계最強者는

3巴戰 예상 · 새版圖

보그 은퇴선언으로 팽팽한 接戰
코너즈·매켄로·렌들 우열못가려

지난해 세계프로테니스는 미국의 지미·코너스(30)와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26)가 주름잡았다. 코너즈는 4대 이벤트중 윔블던과 미국오픈을 제패했으며, 나브라틸로바는 미국오픈만 제외하고 나머지 3대회를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올해는 과연 누가 최강자가 될 것인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 테니스단체와 매스컴이 지난해 선정한 세계랭킹이 제각기 다르듯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이 버티고 있고, 컨디션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도 자신있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선수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남자프로선수 가운데 지난해 세계정상에 복귀한 지미·코너즈는 72년부터 지난연말까지 각종대회서 총4백5만5백65달러를 벌어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았다. 그다음은 존·매켄로(3백95만달러), 비온·보그(3백60만달러)순인데 큰 차이가 없어 올해는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1년동안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는 체코의 최강 이반·렌들로 지난해 1백52만8천8백50달러를 벌어 수위를 차지했으며, 비온·보그와 존·매켄로가 그다음으로 각각 1백만달러 이상을 한해동안 번 기록이 있다.

여자선수중에는 지난해 미국오픈에서 동료 슈라이버에 져 아깝게 그랜드슬램을 놓쳤던 나브라틸로바가 74년부터 총4백64만7천59달러를 벌어 남자 1위인 지미·코너즈보다 60만달러가 더 많다.

▲존·매켄로

▲이반·렌들

▲나브라틸로바

▲에버트

그다음은 지난해 미국오픈서 6번째 우승한 미국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로 4백20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나브라틸로바는 지난해 총1백19만4천55달러의 상금을 벌어 1년동안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기록도 수립해왔다.

올해 남자테니스계는 금발의 수퍼스타 비온·보그의 은퇴선언으로 시작됐다.

테니스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아끼는 팬들을 더욱 아쉽게 하고 있다. 지난해 29세의 노장 지미·코너즈가 정상에 복귀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못했지만 올해는 기라성같은 스타들로 춘추전국시대의 양상을 보일것 같다.

이중에도 테니스의 악동으로 불리는 존·매켄로와 지미·코너즈, 신예 이반·렌들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1미터88의 장신에 좋은 그라운드스트로크를 구사하는 렌들은 지난1월 뉴욕에서 열린 매스터즈선수권대회서 코너즈와 매켄로를 꺾고 우승, 좋은 스타트를 보였다. 렌들은 2월에 미국실내대회서 매켄로에 지긴 했으나, 그때까지 7연승을 거둬, 매켄로에 강한 선수라는 정평이 났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매켄로는 최근 83년도 데이비스컵본선1회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서 세계랭킹4, 5위인 기예르모·빌라스와 호세루이스·클레르크에 각각 3-0, 3-2로 패해 지난해 우승팀인 미국이 1회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선수마다 좋아하는 코트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예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미·코너즈는 잔디와 하드코트에서 강한 대신, 렌들은 실내코트에서 뛰어나며, 지난해 프랑스오픈을 제패한 스웨덴의 신예 마츠·발란데르는 클레이코트의 강자이다.

한편 여자테니스계는 조국보다 테니스를 선택한 체코태생의 나브라틸로바와 하나·민들리코바를 꺾고 미국오픈을 석권한 크리스·에버트·로이드의 대결이 계속될 것 같다. 미국오픈은 비온·보그와 나브라틸로바등 유럽태생의 선수들에게는 난공불락의 대회인데, 올해는 과연 이런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거리이다.

작년한해 親知등서 받은 선물
부쉬 6千2百79달러
레이건 萬8千5百弗

연방大法院판사중 百萬長者
샌드라·오코너女史등 3명뿐

▲연방대법원의 백만장자 샌드라·오코너판사.

레이건대통령부부가 지난 한해동안 받은 선물은 총1만8천5백90달러어치 인데 비해 부쉬부통령부부는 6천2백79달러어치를 선사받았으며 연방대법원 판사중 백만장자는 유일한 여판사 샌드라·오코너여사까지 합해 모두 3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공개된 82년도 재정보고서의 내용중 일부. 이 보고서는 정부윤리강령에 의해 매년 의무공개토록 규정되어있다.

레이건대통령이 받은 선물내역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올라프·위고스트로부터 받은 그림2점(1만2천달러상당)에서부터, 1천1백12달러짜리 잔디깎는 기계, 6백72달러짜리 비료주는기계, 2백40달러짜리 은팔찌, 1백80달러짜리 목걸이, 1백95달러짜리 도마뱀가죽벨트, 1천1백20달러짜리 오리엔탈접시, 1백75달러짜리 정원용카트등등… 이같은 선물들은 대부분 소위 「키친내각」멤버로 알려진 레이건의 재벌친지들로 부터 받은것 들이다.

부쉬부통령이 받은 선물도 와이키 운동화로부터 시작, 다양한 품목인데 그중에는 팝콘을 가득채운 2개의 청동코끼리도 있으며 48켤레의 양말과 3개의 구찌 넥타이도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판사중 가장 부자는 5백7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가진 루이스·파웰판사.

제2위는 여판사 오코너이며 연봉10만7백달러를 받는 대법원장 워렌·버거가 3번째로 나타났다.

<시>

분홍신

변 은 숙

한끼분의 양식을 손에 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하통로로 아침 바람이 아직 찬데
우리들은 모두 서둘러 차를 탄다.

두 다리로 신은 신발,
Ontario호수의 갈매기를 Downtown에서도
볼 수 있는 토론토의 아침에
내가 신고 가는 신발은
춤추는 분홍신이 혹시 아닌가.

아버지가 지구에서 흙위로 가고 있을 때,
나는 허공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오만이 거꾸로 떨어져 싹이 튼
소외된 욕망의 걸음걸이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목을 자르는 아픔 후에야 벗어날 수 있는
신발의 마력으로부터
언제쯤 산산히 찢기울 수 있을까.
목발을 짚고 새로이 일어설 수 있을까.

안데르센으로부터 지금까지
분홍신은 항상 끝없는 춤을 추게 하는 것,
우리의 발을 가지고 가는 것.

일주일분의 양식을 위하여 나선 아침에
자유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맨발로 걸어가도 좋겠다.

(문협회원)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한국 [illegible]·人蔘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CANADA CHRISTIAN COLLEGE
&
School of Graduate Studies

Dr. W. Kenneth Robinson, Q.C., M.P.,LL.D., Ambassador Lee, Dr. E.S. McVety, President of Canada Christian College, and Chief Consul, Mr. Lee.

1983년도 여름학기
기간 : 5월24일~6월21일, 1983년
◎현재 접수중
◎가을학기 프로그램 문의환영
학위 ●준신학사(60시간 코스)
●신학학사(158시간 코스)
●신학석사 M.DIV.
●신학박사 D.MIN.
C.C.C.는 공적으로 캐나다이민성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승인이 되어 있읍니다.
*대부분의 학급은 넓은 장소인 252 BLOOR ST. W.에서 열립니다.
ㅁ에어콘시설 완비
ㅁ파킹장 준비
ㅁ써브웨이에서 직접 빌딩으로 통함(at St. George)
※매학기마다 제2외국어를 배웁니다(영어)

"성장기 어린이엔 영양급식이 중요"

두뇌·육체건강에 큰영향

제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키가 작거나 왜소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늘 안타깝다 해서, 이리저리 병원이나 약국을 쫓아다니며 키를 크게하는 비방을 찾아 헤매지만 별 뾰족한 약이나 성장촉진 식품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브루클린에 사는 토비·피쉬 여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들 스티븐이 친구들로부터 「새우(shrimp)」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보았을때 가슴이 찢어질듯 했고, 그 아이들에 대한 증오심마저 감추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티븐이 15살이 되었을때 그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스티븐을 데리고 맨하탄에 있는 콜럼비아 장로교병원의 내분비 소아과 제니퍼·벨박사를 찾았다.

스티븐의 진찰기록을 살핀 벨박사는 어떤 질병이나 혹은 홀몬결핍증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고, 아이의 손목과 팔의 X-레이사진을 찍어 전국아동성장 기준과 비교, 생리학적 연령을 측정했다.

사람의 신장은 제각기 다른 고유의 생리적 스케줄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그 진행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빠를 수도 있고 또 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생리학적 연령이 실제연령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측정의 결과 스티븐의 생리학적 연령은 실제연령에 비해 2-3살이 낮았다. 따라서 당시 1백38cm에 불과한 그의 키는 1백73cm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2살이 많은 21세까지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잠재적성장의 가능성을 듣고난 후 늘 주눅들어있던 스티븐의 표정은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학교성적도 향상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다.

인간의 가장빠른 성장은 단 한개의 배란이 수십여개의 세포로 확산되는 출생전 배란기에 이루어진다. 출생후 1년동안 1배반이 성장하고 이후 사춘기까지 성장속도가 차츰 느려지게 된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1-2년 빠른 10-13세에 일찍 사춘기에 돌입하고, 대신 성장은 그만큼 빨리 중단하게 된다.

또한 성장기의 영양급식은 신장이나 체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상원에 보고된 의학연구결과는 소위 「알려지지 않은 영양부족」 현상이 보스턴지역 어린이들에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 등의 어린이와는 달리 식사를 적게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영양부족은 어린이의 두뇌와 육체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스턴 사립병원이 4백53명의 아동환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보다 성장홀몬의 양이 부족할때 생기는 성장홀몬 결핍증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는 5천명중 1명꼴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뇌하수체가 지나치게 많이 홀몬을 분비한다면 아이는 거인이 되고 또 너무 홀몬분비가 적으면 난장이가 된다.

뇌하수체는 출생시부터 어른이 되어 성장이 멈출때 까지 인체의 성장을 조절한다. 과학자들은 이 성장홀몬의 생산을 관계하는 요소가 GRF라고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구조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있는 솔크연구소의 과학자들이 GRF의 합성에 성공하였는데, 정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성장홀몬결핍증으로 성장이 부진한 어린이들에게 주입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의 신체적 크기는 자신의 유전적형질에 의해 종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크로그만성장센터의 전문가 솔로몬·카츠는 어린이들의 잠재적 성장력을 완전히 개발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수면을 적절히 취할 것 : 휴식시간(수면)이 지나치게 짧은 아동이나, 반대로 너무 오랜시간 동안 잠을 자는 아동은 그 성장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운동을 할 것 : 최대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학교통학시 스쿨버스 대신 자전거를 이용케 한다든지, 뛰어 다니게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균형잡힌 식사 : 이 점이 성장발육에 가장 중요하다. 키작은 어린이의 대부분이 편식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어린이들의 키는 유전적 요소가 주요역할을 하지만 영양·수면·운동·정서적 안정등으로 잠재적 성장력 개발을 1백% 이룰수도 있다.

▲정서적 문제 : 아이들의 정서적문제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라. 스트레스는 성장을 저해시킨다.

홀몬결핍증의한 왜소한 체격은 5천명중 발생은 1명꼴에 불과

키작다고 열등감 갖지않게 신경을

단체관람 할인혜택

로얄·온타리오·뮤지움(ROM)

현재 「알렉산더탐구(The Search for Alexander)」와 「런던타워로 부터온 보물(Treasures from the Tower of London)」전을 개최하고 있는 로얄·온타리오·뮤지움(ROM)은 성인단체관람자에게 특별할인을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매일 오후5시 부터 밤11시까지 25명이상 관람하는 단체는 성인 일인당 2달러 할인한 3달러로 입장할 수 있으며, 안내자도 수반된다.

안내문의는 전화 416-968-0879 미스·스크로(Skrow)에 연락하면 된다.

이번 전시기간은 런던타워의 보물전은 6월10일까지 이며, 알렉산더는 7월10일까지 이다.

〈연재소설〉

혼돈 ㉖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집을 나가버린 비정스러운 어머니와 영수의 뺨을 치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아버지와, 다리를 절룩거리며 당구장을 나가던 불쌍한 미영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꿀꺽꿀꺽 술을 마셨다.

영수가 빈잔을 내려놓았을 때 방안에 있던 네명의 친구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고맙다 영수야. 덕기 너는 아까 우리가 서약의 잔을 돌면서 맹세했던 조약들을 영수에게 한번 더 들려줘."

"의리, 함구, 비밀 유지."

태영의 요청에 따라 덕기라는 똥똥한 친구가 구령을 하듯이 세개의 조약을 외웠다.

"이름은 「암흑」이라고 지었는데 어때? 암흑단, 그럴듯하지 않아?"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영수의 동의를 구하면서 태영이 말했다.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니?"

"그거야 오늘밤부터라도 시작해야지."

태영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럼, 무슨 정보라도 가지고 있니?"

"정보라니?"

"뉘집 침대밑에 돈이 깔려 있는지 아느냐 말이야."

"그거야 뭐,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태영은 말끝을 흐렸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가는 돈은커녕 침대밑에 손도 못넣어보고 깜방으로 갈거야."

영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돈을 훔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 태영이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애. 만일에 먹고 마시며 탕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조직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어?"

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글쎄,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내생각으로는 수입의 반정도는 좋은 곳에 썼으면 해."

"좋은 곳이라뇨?"

수한이 큰 눈을 굴리며 물었다.

"많지요. 양로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찬성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침대밑에 감추어둔 돈을 긁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그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덕기에 이어 만영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거의 모두가 찬성을 했으니까 처리문제는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짓고 뉘집을 언제 어떻게 털 것인가를 결정합시다."

수한이의 제의였다.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털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했는데, 영수의 질문을 받고 보니 그게 그렇게 쉬울 것같지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알아내는 수 밖에 더 있겠어?"

"그걸 당장 어떻게 알아내? 돈을 침대밑에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고 다니지도 않을텐데…"

태영의 뒤를 이어 만영과 덕기가 문답을 주고 받았으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내용은 아니었다.

"전혀 준비도 없이 며칠내에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리가 없이 하려면 최소한 3~4개월 전부터 정보수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깁니까?"

수한이 힘이 빠진 목소리로 영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친구들이 찬성을 하며는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읍니다."

풀이 죽어가던 태영과 세 친구들의 시선이 영수에게 모두어졌다. 그들의 눈빛은 영수의 다음말을 갈망하고 있었다.

"우리들 자신의 집을 털면 됩니다."

말을 마친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해서는 안될 말을, 세상에 알려져서는 큰일날 비밀을 말해버릴 것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가슴은 더욱 뛰고, 마음이 불안해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친구들의 놀란 눈망울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암흑단원들은 영수의 제의로 결국 자신의 집부터 털기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다보고 있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내가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정보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마음이 들떠 있읍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섣불리 덤벼들게 하여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경험이 없읍니다. 설혹 우리가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세째는 우리들은 자신의 집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돈을 감추어 두는 장소도 대강은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고 서툰 우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의 집을 대상으로 하면 그만큼 안전하고 경험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다른 집들의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 시간도 벌 수가 있읍니다."

영수는 침묵을 깨고 떨리는 음성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무언가 무서운 것을 향해 가는 것같이 가슴이 떨리고 두려우면서도 강한 모험심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뉘집부터 털거야?"

긴장된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영이 입을 열었다.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하는 게 어때?"

"좋아, 그게 좋겠어."

"복잡하게 제비를 뽑을 필요가 있어? 어차피 누구나가 한번씩 차례가 되어야만 할텐데 생일이 빠른 사람부터 시작하지 뭐?"

하나씩 하나씩 충격에서 깨어난 그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예 영수가 제안을 했으니까 영수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순번을 정해 버려."

"좋아."

태영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는 표정으로 신속하게 순번을 정하자, 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명의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LL SEE YOU NEXT SUNDAY.

「내일」은 tomorrow 「모레」는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한다. 그러면 「글피」와 「그끄저께」는 뭐라고 하는가? 쉬우면서도 막상 해보려면 잘 안되는 말들이다. 어떤 분이 「글피」를 the day after after tomorrow라고 했는데 그것은 the day after tomorrow에다가 생각나는대로 after만 하나 더 붙인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글피」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three days from today나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three days from now 또는 three days later라고 해도 된다. 「어제」는 yesterday 「그제」는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끄저께」는 많은 사람들이 three days before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three days ago라고 해야 된다.

「이번 일요일」은 this Sunday, coming Sunday, this coming Sunday라고 하고 next Sunday는 이번 일요일이 아닌 「다음주 일요일」을 말한다.

또 「날짜」와 「요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는 What's the date today? 라고 하거나 또는 What's today's date? 라고 하며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는 What day is it today? 혹은 What day of the week is it?라고 하면 된다.

A: Hello, this is Mr. Smith speaking.
B: Hi, this is Mac. Why didn't you show up last Sunday?
A: What do you mean?
B: You told me to meet you last Sunday, didn't you?
A: No, I said next Sunday, not this Sunday.
B: Oh, I guess I misunderstood you.

A:여보세요. 미스터 스미쓰입니다.
B:안녕하세요. 매-엑인데요. 지난 일요일에는 왜 나오지 않으셨어요?
A:무슨 말씀이신지요?
B:지난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요?
A:아니오. 이번 일요일이 아니라 다음주 일요일이라고 했는데요.
B:제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군요.

※show up:나타나다.
Ex. She never showed up.그녀는 나타나지도 않았어.
※mean:의미하다. 무슨 뜻인가를 물을 때는 What do you mean? 이라고 해야지 What's mean?이라고 하지 말 것.
〈발음〉 next Sunday:〈넥스트 썬데이〉와 같이 t가 파열되지 않고 「넥 썬데이」로 발음된다.

제6회 토론토 한인 친선 축구대회

금번 축구협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교민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하여 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7월2일(토) 오전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축구장 A,B,C
참 가 비 • 청소년 $60
OB(30세이상) $80
신청마감 • 1983년7월1일(금) 오후7시
연 락 처 • 박원모 ☎498-0332
권성웅 ☎752-6023
시 상 • 청소년•우승, 준우승, 3등
OB•우승, 준우승, 3등
참가상, 응원상
주장회의 • 1983년7월1일(금) 오후7시
브랜돈스포츠사

(9월3일 도시대항 축구대회 및 체전파견 최종선발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최 : 한인축구협회 후원 : 한인회, 대한체육회

양복지·양장지·와이셔츠등 化學섬유類값 내린다

7월부터 2.88~12.86%까지

合成고무·수지·플래스틱도

양복지·양장지·와이셔츠·자키트·쉐터·T셔츠·타이어·PP및PE백·농업용필름과 플래스틱시기류, 단열건축자재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값이 오는 7월1일부터 석유화학제품가격의 인하요인만큼 내리게 됐다。

상공부는 나프타유분 가격인하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중간원료메이커들이16일부터 중간원료 가격을 2·88%~12·86%까지 내렸으므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화학섬유·합성고무및 수지제품 메이커들도 소폭이나마 가격을 인하토록 권장키로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과 함께 국제경쟁력이있는 섬유제품과 플래스틱제품등을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시킬방침이어서관련 메이커들은 외국수입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이기위해서도 가격을 내릴것으로 보인다。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韓洋化學·大韓油化·湖南石油·蔚山石油·韓南化學·韓國프라스틱등이 지난4월19일 나프타溜分인하에따라 저밀도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등 7개 석유화학계열제품가격을 2·88%~12·86%까지 자율적으로 인하, 16일 공장출고분부터 인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제품별 인하내용은▲韓洋化學이 농업용 필름인LDPE가격을 7·08%▲大韓油化와 湖南石油가 어망·로프·PP부대원료인 HDPE가격을 4·04%、PP가격을 2·88%▲蔚山石油가 PS원료인 SM가격을 12·86%▲韓南化學이 단열재원료인 PS가격을6·04%▲韓洋化學 VCM가격을 4·11%▲韓國프라스틱이 PVC 가격을3·3%씩각각인하했다。

관련메이커들은 그동안 수출용에비해 내수용 공급가격이 훨씬 비쌌었기 때문에 수출용은 그대로 놔두고 내수용공급가격을 인하한것이다。

상공부는 석유화학 계열제품의 내수공급가격이 이처럼 인하됨에따라 이를원료로하는 화학섬유제품,합성고무및 수지제품 플래스틱제품들도 상반기말 까지 가격인하 요인만큼 내수판매가격에 반영, 인하토록하여 물가안정과 수요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가져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拉致犯재판 參觀위해 中共, 관리派韓가능성

美 LA타임즈報道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중공은 서울에서 열릴 중공여객기 납치범 6명에대한 재판을 참관할 목적으로 관리및 기자들을 한국에 파견할 가능성이있다고 17일자 美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北京의 외교소식통을인용, 보도했다。

이신문은 한국에 파견될 중공관리는 중공민항총국 소속관리와 기자들이 될것같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韓·中共양국관계는 한국이 어느정도 신속하고 엄격하게 납치범들을 처벌하는가 하는 재판결과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 여객기납치의 주범은 중공동북부지방의 한 省에 근무하는 중간계층관리이며 공범중 2명은 그지방의 학교경비원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신문은 그밖에도 지난 한해동안 중공에서는 모두 12건의 비행기납치 미수사건이 있었으며 82년4월1백12명이 사망한 항공기추락사건도 사실은 납치기도중에 일어난것이라는 미확인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全대통령이 勞動文化祭수상자들을 접견하고있다。

"開途國경제 살아야 세계安定에도 도움"

全대통령, 스노베日特使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駐韓일본대사를지낸 스노베·료죠(須之部量三) 일본정부特使를 접견, 나까소네(中曾根康弘) 수상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各國巡訪결과에 관해 설명을 들은뒤 오찬을 함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硬直되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날로 축소돼가고있는것은 우려할만한사태』라고 지적,『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파탄이되면 선진국경제에도 좋지않은 영향이파급된다는 점을 감안해 開途國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開途國들의 購買力이 증대돼야 세계전체가 안정될것이므로 선진국들은 開途國의 구매력증대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윌리엄스버그에서 열리는 西方선진국頂上회담은 자유세계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세계경제不況극복에 성과를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앞으로 韓日관계를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힘을합쳐 나가면 이지역의 평화는물론 세계경제부흥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마에다(前田利一) 駐韓일본대사가 배석했다。

勞動문화제 受賞者 35명접견 致賀격려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4회 勞動文化祭수상자 35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조국창조의 최일선역군으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선진조국은 앞당겨 이룩될수있다』고 말하고『여러분들은 직장활동을 통해 직장사회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히 근로자와 기업인간에 共感帶를넓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도미니카聯邦 찰즈首相 離韓

메어리·유제니아·찰즈 도미니카聯邦수상은 4일간의 訪韓日程을 마치고 17일 상오10시30분 離韓했다。

찰즈首相은 이날 離韓에 앞서 신라호텔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南北韓통일문제는 공개적이고 솔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통해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도미니카연방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기꺼이 지지,협조할것』이라고 밝혔다。

英글로스터公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7일하오 청와대에서 엘리자베드 英國女王의 4촌인 글로스터公을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스프레클리 駐韓영국대사가 배석했다。

韓佛 經協혼성委 오늘 서울서開催

한국과 프랑스의 經濟協力협정에 따른 韓佛경제협력混成위원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先後進國간 경제구조 조건등 세계적인 경제문제와 韓·佛양국간의 국내경제현황을 토의하고 통상 진흥과 자본·기술 협력및 농수산협력확대방안등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

中共外相 平壤방문

【北京聯合=特約】吳學謙中共외상이 이달말께 北韓을 방문한다고 中共 외무성이 17일 발표했다。

還都직후… 50년대의 明洞

렌즈의 時代史

한국寫眞 半世紀 展서

지리한 전쟁이 끝났다。 환도 행렬을 따라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돌아왔다。 그러나 잿더미가 된 明洞에는 강아지풀과 억새풀만 무성하였고 피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다。 明洞입구 미도파백화점의 담에 기대어 「求職」 간판을 몸에달고 서 있는 이청년의 카키색 상의와 비스듬한자세, 얼굴 윗부분을 가리운 둥근모자챙에 50년대의 비극은 희극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청년등뒤로 머리를 50년대식으로 바짝 깎은 두 남자가 피난지에서돌아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모습도 보인다。 그들은 반가운 악수를 나누며 피난의 서러움과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살아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반가운 악수와 포옹은 환도직후 서울거리 곳곳에서 감격시대를 만들었다。

살아있음의 반가움과 살아가기의 고통을 이 한장의 사진은 동시에포착해내고있다。 뒤로 조선호텔구내의 숲이 보인다。 【金麟기자】

「求職」 林應植 作

北傀 기습南侵계획 완료

開戰 5~7일에 「완전赤化」노려

歸順한 신중철大尉 폭로

북괴는 지난75년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전선의 대부대와 후방을 기습유린하는특수부대의 배합작전으로 개전5~7일만에 승세를 굳힌다는 남침작전계획을 짜놓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웅평 소령의 월남이후 북괴는 모든 조종사의 사상동향을 재점검、다수의 핵심조종사들을 제대시키거나 다른 병과로 내쫓았으며 이와같은 월남귀순예방을 위한 사상점토는 육군부대에도 파급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7일 휴전선을넘어 귀순한 전북괴군대위 신중철용사(36)가 17일상오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은자리에서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신대위에 의하면 북괴군은 이같은 남침작전계획수행을위해 인민군의 지휘관을 젊은층으로 교체, 북괴군 13사단의경우 30대연대장이 4명이나 부임하고있으며 지난2년사이 8개군단급부대를 증편하고 야전포병을 자주포로 바꾸었으며 기갑차량의 엔진출력도 높이는과업을 추진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괴군은 일선부대에 로키트포의일종인 수성포소대, 화성포소대등을 새로 만들고있다고밝혔다。

金日成군사종합대학 출신인 신대위는 이작전계획이 金日成군사종합대 총장 金순일중장에 의해 완성됐으며 이계획을 검토한 金日成은 만족한나머지 金순일에게 북한에서 유일하게 군사학박사 칭호를 주었다고 밝혔다。

◇신중철용사

신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2월1일 준전시태세 선포이후 북괴군 일선부대원들은 하루 3~4시간을 자며 훈련과 갱도파기작업에 시달린나머지 과로와불만에 싸여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포자기에빠진 북괴군전사들은 군기가 문란해져 걸핏하면 부대를 이탈하고 있으며 이들 전사들은 당원인 정치장교들에겐 깍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일반군관들에게는 본체만체 경례도않고 지나친다고 지적했다。

신대위는 이웅평조종사의 귀순소식을 사전이를만에 들었으며 이때 자신도 귀순할뜻을 굳혔는데 월남자가생기면 무조건 쏴죽이라는 지시가 북괴의 비무장지대 근무자들에게 내려져있다고 전했다。

被拉機 오늘 離韓

중공여객기가 피납 13일만인 18일 상오 金浦공항을 이륙, 上海로 돌아간다。

17일 관계당국이 밝힌바에 의하면 피납여객기는18일상오9시에서 10시사이에 이륙할예정인데 이에앞서 17일하오 기내정비와의자설치등을 완료하고 上海까지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15톤을 KAL에 요구、적재했다。

귀향하는 피납기에는 교체멤버인 白景休기장을비롯, 총상을입고 그동안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중이던 피납기의 무전사 王永昌씨등 13명이 모두가 탑승한다。

民權 23일全黨대회

民權黨은 오는 23일하오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정기全黨대회를 열고 空席중인 총재를 선출한다。

民權黨은 17일현재 36개 지구당의 개편대회를 끝냈다。

社會漫評

오나가나 滿員謝禮…

地平線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약 1백여군데 확인되고 있다。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북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에서 발굴하고 있는 신석기말기, 기원전10세기께의 유적은, 그것이 무덤자리라는데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지금까지 발굴된것은 모두가 집터자리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화적인 발달을 그들이 썼던 도구로 구분할 때의 석기시대란 크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뉜다。사람이 쇠붙이를 쓰기전까지는 석기、토기·골각기등을 썼기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그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인 것으로 알려지기로는,경기도 전곡리 구석기문화로서,약2백70만년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문화는 약2천년전까지 이어져 왔으리라고 추정되나, 그 비롯이 언제인가에는 아직도 말이 구구하다。다만 현재까지의 신석기유적으로 가장 오래이기는약5천년전으로 보이는 경기도 미사리 유적이있다。이곳을 살펴 우리땅의 신석기문화인들은 古아시아족이거나 시베리아 연해주로 부터 왔을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하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강원도양양군 오산리 신석기유적이발견되고, 그 유물을 탄소측정을 한 결과 약 7천년전으로 밝혀져서, 지금까지의 학설이 흔들리게 되었다。古한국족이 따로 살았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된 것이다。 국외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혼돈과 방불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학문상의 전문적인 쟁점을 접어두고 본다면,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흑요석·수석·규암등과같이 단단한 돌을 잘 다듬어서 돌칼·돌화살·돌도끼·돌그릇등을 만들었고 수혈식 움집에살면서 사냥을 주로 하고, 약간의 가축을 기르며 조금은 농사도 지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있다。

▼아마도 약 3천년의 긴잠에서 깬 후포리의 신석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그들이 생전에 입었던 나무껍질이나 짐승가죽 옷과 그리고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백골만이 남았다。그들이 누워서 20세기 막바지 사람들과 보이 아니게 이룬 대면의 감회가 어떤것인지, 마치 타임·캡슐을 들여다 보는듯한 느낌과 기대가 엇갈린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축
(창간9주년)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THE KOREA TIMES Toronto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테잎 2,600여개를 보유
ㅁ새댁 ㅁ다녀왔읍니다 ㅁ청춘행진곡
ㅁ안개 ㅁ엄마는 바빠요 ㅁ추동궁마마

레바논·이스라엘 撤軍협정 공식調印

어제 하오 할데서 美特使 동석

【할데(레바논)AP聯合=特約】 레바논과 이스라엘양국은 시리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17일 미국이 중재한 레바논주둔 외국군철수협정을 공식조인했다。

베이루트교외 할데의 비치호텔에서 17일하오 5시5분(한국시간)데이비드·킴체 이스라엘 수석대표와 안토이네·파탈 레바논 수석대표는 중재자인 미국의 드레이퍼(중동) 특사가 동석한 가운데 37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어판과 아랍어판 철군협정문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 철군협정안에 따르면 협정발표후 이스라엘 군은 8~12주안에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남부 레바논에 폭45㎞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안은 또▲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상태종식▲2년간 양국의 공동순시와 베이루트에서의 이스라엘대표권행사▲양국의주권및 영토보전등을담고있다。▲이스라엘·레바논장교및 미국대표등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안보상황을 감시하며 이 공동위원회아래에 설치될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공동감시단은 레바논의 지휘아래 남부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밤낮으로 하루 8차례씩 순시하게된다。

◇沈圖총국장 北京기자견회 沈圖中共民航總局長이 16일 北京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번사건에 관한 경위를 밝히고있다。沈은 中共이 앞으로 여객기의 납치를 방지하기위해 공항에서의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北京16日AP電=聯合】

뜻밖의 利得줄수도 美誌 被拉機에논평

【워싱턴=聯合】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중공민항기납치사건은 한국에 뜻밖의 이득을 가져다줄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23일자 워싱턴·휘스퍼칼럼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1950년 한국동란이후 접촉이없던 한·중공양국이 이번 비행기사건을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루트美대사관 폭파에 이란政府 관련"

CBS 報道

【워싱턴UPI=聯合】 미정보관리들은 지난달에있은 베이루트주재 미대사관폭파사건에 이란정부가 관련됐다는 증거를 갖고있다고 미CBS방송이 16일 보도했다。

CBS방송은 이날 데이비드·마틴 국방성출입기자의 보도를 통해 지난달 18일 17명의 미국인을 포함、모두 63명이 희생된 베이루트주재 미대사관 폭파사건이 발생하기 2~3일전 이란외무성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주재 이란대사관에 일련의 전문지시를 보냈으며 이 전문들을 미정보요원들이 탐지해냈다고 밝히고 그가운데 하나는 베이루트의 모처에대한 테러공격을지원하기위해 2만5천달러를지급하라는내용으로돼있었다고말했다。

"滯韓중 厚待감사"

센투總局長 한국에 電文보내와

센투(沈圖)중공민항총국장이 교통부 金徹存항공국장에게 『무사히 북경에 도착했다。 체한중 후대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지난14일 AFTN(동남아고정통신망)을 통해 타전해왔다。

이전문에는 또 『KAL趙重勳사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統一은 地上과제"

李文公 戰略硏토론

【런던=聯合】 李振羲문공부장관은 16일하오1시30분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안보」라는 주제로 연설한데 이어 약1시간에 걸쳐 이 주제에 관해 이 자리에 참가한 IISS연구위원및 피초청자들과 진지한 문답식의 토론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10명의 연구위원、언론인·각 대사관간부·영국외무성관리·IISS연수위탁생등 60여명의 국제정세전문가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질문은 주로 한국정부가 동아시아정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李장관은 민족화합과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원칙과 국가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안보에 입각한 한국의 정책과 위치를 개진했다。

"언론신뢰喪失위기"

IPI총회 開幕… 사무국장 연설

【암스테르담(네덜란드)AP=聯合】 제32차 국제신문인협회(IPI) 총회가 한국등 44개국의 3백여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암스테르담에서 개막되었다。

베아트릭스 네덜란드 여왕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막회의에서 피터·갤리너 사무국장은 연설을 통해 언론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않기위해 자체규제감독을 해야한다고 경고하고『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함에따라 언론은 그신뢰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對韓FMS 增額 美上院外交委서

【워싱턴=聯合】 미상원외교위원회는 84회계연도 對韓군사판매차관(FMS) 대한 수권법안을 개정、2억1천만달러로 줄였던 FMS액수를 2억3천만달러로 다시 늘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人事異動

水協

▲木浦水協조합장 朴鉉祥▲高城郡水協전무 尹義求▲東草〃 田炳垠▲襄陽郡〃 金昌河▲溟州郡 李聖栽▲唐津郡〃 張潤植▲長項〃 鄭雲泳▲扶安〃 金炳吉▲莞島郡〃 鄭禾旭▲珍島郡〃 李在禾▲海南郡〃 金永來▲巨文島〃 金榮一▲長項郡〃 安安植▲寶城郡〃 吳仁伯▲全南定置〃 明漢圭▲近海流網〃 李建鏞▲浦項〃 李命道▲厚浦〃 崔炫錫▲城山浦〃 李文善(16日字)

國立工業試驗院

▲檢定第2科長 成勳慶▲精密計測科長 尹鎭(17日字)

本社來訪

▲金宗炫씨 (한국자동차보험대표이사) ▲李太教씨 (〃상무이사) ▲趙載麟씨 (〃〃) 신임인사차

레이건再選은 경제政策에 달려있다

U·S·뉴스誌 각계지도자 여론조사

「대통령에 失望」 크게 늘어나

軍備 완화등 정책 修正원해

국내외문제가 산적해있고 취임초보다 인기가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레이건 美대통령은 공화당내에서 84년 대통령후보예정자중 선두주자로 군림、미국경제복여부에 따라서는 재선여부마저 좌우하게 될것이라고 금주에 발행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가 보도했다。

同誌가 해마다 실시하는 정치경제등 29개분야 1천7백17명의 각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레이건대통령은 빨리 그의 정책기조를 바꿔야하며 특히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완화하고 엄청난 재정결손을덜기위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할예정인 소득세율삭감을 연기해야 경제성장등 국내외의도전에대처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인기에대해 각계응답자들은 아직 레이건의 대통령직수행을 「적절하다」고 합격선을 매겼는데 그의 인기에대한 내용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81년보다는 떨어져 「대통령으로서 훌륭하다」는 답변은 81년 34·1%에서 24·5%로 뚝 떨어졌고 「실망시키고 있다」는 설문에 대해선 81년의 7·5%에서 무려21·5%로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이런 레이건의 인기는 10·2%의 실업률에서 나타난 경제불황이 가장큰것으로 소위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그의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데는 응답자의 82%가 지지를나타냈다。

응답자들이 수정을 원하는 경제정책관련분야는 국방비지출완화로 재정지출을 줄일것、소득세율 삭감을 연기하고 사치품목 복권당첨등 횡재 또는 불로소득에 중세로서 세수를늘릴것、사회복지 계획을 늘여나갈것등으로 되어있다。

응답자들은 또 中東사태 및 유럽의 미사일배치를둘러싼 對蘇문제등 對外문제가 있음에도 현재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이며 그중 시급한 국가당면문제의 첫째가 실업감소、다음이 인플레계속억제 경기부양책이자율의 계속인하등 4위까지가 경제관계였으며 다섯째가 소련과의 상호핵동결추진 여섯째가 국방력의 강화였다。

이조사는 또한 「누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설문도 던졌는데 레이건이 단연 1위인것은 당연하지만 둘째를 美의 경제복에 주요역할을 하고있는 연방준비은행(FRB)폴·볼커총재가 차지한 것은 주목될만한 것이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톱·10의순서는 레이건 대통령、폴·볼커총재、토머스·오닐하원의장 (민주당)、조지·슐츠국무장관、하워드·베이커상원공화당원내총무、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제임즈·베이커백악관수석보좌관、에드윈·미즈백악관고문、워런·버거대법원장、도널드·리건재무장관、순이었고 CBS앵커맨 댄·래더가 12위、에드워드·케네디가 13위、워싱턴·포스트지사장 캐더린·그레이엄 17위、부시부통령 18위、월터·먼데일민주당대통령후보출마자가20위였고 레이건의 백악관진용가운데는 제임즈·베이커、에드윈·미즈가 모두 톱10에 들어있는데 반해 안보담당보좌관인 윌리엄·클라크는 22위였다。

이조사는 레이건이 만약 출마를 하지않는경우 공화당의 후보는 현부시부통령이 48·3%로 가장강력한 후보라고 지적했다。【워싱턴=李文熙특파원】

모차르트 毒殺당했다

英서 모의裁判、病死아닌 戀敵에 죽어

지난 1791년12월5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음악의 천재 볼프강·아마데우스·모차르트(사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장티푸스로 사망한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는주장이제기돼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15일 영국남부해안에서 열린 브라이튼음악제에서는 모차르트의 사인에 관한 모의재판이 개최됐는데 이자리에 참석한 2백50명의 배심원들은 모차르트가 연적의손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결론을내렸다。

이 음악제를 주관한 이언·헌터씨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당시 프란츠·호프데멜이라는 빈 궁정 관리의 부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에 강한 질투를 느낀 호프데멜이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것。

헌터씨는 호프데멜의 부인인 마그달레나는 당시 모차르트의 피아노제자였으며 결국 그의 정부가 됐다고 주장하고 모차르트가 당시 각광을 받던 궁정음악가였으면서 빈민묘지에 묻힌 것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AP】

海外토픽

트루먼、아이크 在任당시 對蘇핵공격 가능성 검토

美國의前대통령 해리·트루먼과 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 소련에대한 예방적인 핵공격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최근 일반문서로 분류된 미국방성문서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지는16일이 문서들을 인용、미합참이 지난1945년 트루먼前대통령에게 미국에대한 핵공격으로 발생할수있는결과에대한 연구초안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3년간에걸친 분석끝에 그러한 연구가 묵살됐다고 말했다。【워싱턴UPI=聯合】

社說

『콱 죽었으면…』의 北韓

—歸順 신중철勇士의 暴露를 듣고

오늘의 北韓주민들은 金日成부자가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전쟁연습과 重勞動、그리고 思想학습에 지칠대로 지쳐있음이 거듭 판명되고있다。 주린 배를 걷어잡고 하루에 몇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비참하고 각박한 처지에서、차라리 「콱 죽었으면 편하겠다」고 하는 말이 流行語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義擧귀순한 전北傀軍 제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 신중철大尉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北韓실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의 하나이다。

앞서 지난 2월25일 전北傀軍 李雄平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自由大韓으로 용감히 탈출해오는데 성공했으며、그 역시 기자회견에서 北韓주민들이 한탄조로 「전쟁이 일어나려면 빨리 일어나란」고 자포자기하고있는 실정을 폭로했었다。 北韓주민들의 생활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최악의 限界狀況에 이르렀음을 되씹게 한다。 나아가서 北傀軍군관들의 잇딴 義擧귀순의 繼起는 세계에서 가장 고약하고 非人間的인 金日成·金正日 世襲독재體制의 모순같등에 비추어 당연할 뿐더러 必然視되는 바이다。

귀순용사 신중철大尉는 또 北傀군인들이 현재 自由大韓의 현실을 똑바로 깨닫게 된다면、반수가 아니라 70%는 義擧越南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 자신의 귀순동기로 말하면 北傀의 南侵준비광분에대한 반발、비참한 「人民軍」생활 長期化에 대한 염증、北韓현실에서 느끼는 절망、金正日계 「3대혁명小組」의 행패에 대한 적의、전선에서 듣는 對北放送의 영향에 더하여 李雄平대위의 越南소식에 접한 고무적 충격등으로 풀이된다。

北傀는 그 越南소식을 군관들에게만 알리면서 越南者사전봉쇄 「對策」수립을 엄명했다고한다。 이로 말미암아 部隊점검、思想동향분석、인사이동、행동제한이 더 가혹화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무렵인 지난 5일 中共民航機가 납치되어 平壤상공을 세바퀴 돌고 北韓상공을 종단하여 休戰線을 넘고 우리측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사건은 당황한 北傀의 個人崇拜세습체제가 지닌 官僚主義의 맹점을 滿天下에 드러낸 꼴로 되었다。

그런데 잇따라 義擧귀순한 두 勇士는 모두 해방후 世代이고 北韓閉鎖社會에서만 교육을받았다。 이는 北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는 「思想교육」의 실패와 파탄상을 관측케한다。

무엇보다도 北傀는 그무슨 「思想혁명」 시도에 광분한다해도 人間본연의 人間性 자체는 절대로 말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헤아리게한다。 그 人間性이란 마음놓고 잘 살고 싶다는 기본욕구、즉 自由와 빵에 대한 동시적 갈망을 뜻한다。 또 自由의 본질에는 事物을 판단하고 行動을 선택함에 있어 자기 머리로 생각한바에 따르려는 기본권이 부각되는 것이다。 金日成부자와 그들에게 추종하는 비루한 아부배들이 제아무리 「唯一思想體系」를 운위한다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도 北傀독재층이 안팎으로 초조하게된 불안상태로부터의 出口를 南侵전쟁 획책에 찾으려한다는데대해 우리의 경각심이 고도로 앙양될필요가 있겠다。 北傀軍은 전선의 대부대 작전과 韓國(南韓)의 종심깊이 투입되는 특수부대 작전을 「배합」시키고자 망상하고 있다니 말이다。 하나 우리의對北優越性은 北傀의 여하한 도발책동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객관적 사실로서 健在함이 확실하다。 신중철大尉의 義擧귀순을 환영하면서 平和와 人間다운 생활의 수호에 우리모두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것으로 믿는다。

일할 權利와 쉴 權利

—公休제도 再檢討할때 되었다

국민당은 公休日과 각종기념일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건의안은①公休日順延制②음력설 公休日지정과 양력설公休日단축③각종 기념일의 週中化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현재의 公休日은 관공서의 「公休日에 관한 規程」(大統領令)으로 일요일외에 국경일을 비롯한 연간 15일이 지정되고있다。

그런데 「國慶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경일 (3·1절·제헌절·광복절및 개천절)과、그밖의 公休日도、음력이 기준인 석가탄신과 추석을 제외하고는、다 양력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 결과 이들 公休日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즉 1월1일이 월요일이거나 수요일인 해를 제외하고는 公休日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1~4번이나된다。 이외에 또 석탄일과 추석도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대개 6년에 한번정도 있다。

公休日의 의의는 일요일인 경우는 전적으로 휴식이 목적이고、국경일은 국가적인 축하행사가 목적이며、그밖의 公休日은 그나름대로의 기념행사를위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중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公休日이 일요일과겹치면、첫째로 일요일의 휴식이 폐지되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둘째로는 축하행사 또는 기념행사의 본래의 뜻이 손상되고말 이치다。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축전 또는 제전에의 참여를 외면하거나、휴식의 기회를 앗게 함으로써、국경일 또는 기념일이 지니는 숭고한 목적에서 이탈하고 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폐단을 시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총무처당국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아직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한바없음과、이것이 국회에 제안된 기회에、검토될것이라는 견해를표명하였다。

公休日順延制는 여러 다른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월요병이라는 말도있으나 근로의 성과 또는 노동생산성은 작업시간의 장단에 反比例한다는것이 그방면 전문가들의 通說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에 관하여 널리 公論을 일으켜 슬기로운 결론을 내렸으면한다。

국민당은 이외에 양력설의 休日數를 하루만으로 하고 그 대신 음력설에 이틀동안 쉬게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음력설에 관해서는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本欄도 기회있을때마다 이를 찬동하여온 터이다。 그러나 이를 양력설의 休日단축과 직결시키는 구상은 선뜻 찬동할 수가 없다。

끝으로 전의안은 각종 기념일을 公休日아닌날로 할것을 제의하고있다。 「각종기념일에 관한 規程」(大統領令)에의하면 현재 26가지의 기념일중 향토예비군의날·권농일및 育林日의 세가지는 각각 4·6·11월의 첫토요일로 정하고 있을뿐이고 나머지는 月·日이 일정하다。 그러므로 이경우도 公休日과 겹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념일·기념행사의 뜻과、公休日의 휴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합리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것이다。

順延制와 週中 紀念日制를 「노는 風潮」와 곧장 연결하는것은 잘못일것 같다。 국가적으로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하여 모처럼 재정한 公休日에 國慶大事를 치르거나 기념행사를 전개하는데 따른 모순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국민들의 「일할權利」와 마찬가지 「쉴權利」를 해친다。

국회와 행정부당국은 이문제에 대한 公論을들어 合理的인 결론을 내릴것을 요망하고자한다。

政局往來

中產層이 두터워져야

全斗煥대통령은 17일상오스노베·료오조(須之部量三) 日本정부特使를 접견、환담하는 가운데『한 나라도 中產層이 두터워져야 나라전체가 안정되듯 이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의 地球村이므로 이 지구촌을 구성하고있는 나라가운데 개발도상국의 購買力이 증대돼야 세계전체가 안정될수 있다』고 강조。

全대통령은 또 스노베特使가 『나까소네(中曾根)수상께서 각하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각국巡訪결과를 설명드리고 西方頂上회담을 앞두고 세계경제의 活性化를 위한 각하의 高見을 듣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訪韓했다』고 인사하자『특사까지보내 순방결과를 소상히 설명해준 나까소네수상의 따뜻한 배려와 友誼에 감사한다』고 謝意를 표명。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 하오 노동文化祭 受賞者들과 약40분간茶菓를 함께하며『직장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틈을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한것은 우리근로자들의 우수성과 저력을입증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휴일 順延에 否定的

공휴일 再調整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肯定的

總務處는 국민당이 국회에 낸『公休日및 각종紀念日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에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면서도 차제에 현재의 공휴일에 대한 再調整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肯定的。

한 당국자는 17일『舊正공휴일의 不可방침은 不變이며 新正공휴일의 단축이나 公休日順延制실시도 이에따른 法令의 개정과 행정집행상에 문제점이 많다』고 否定的。

그는 또 『제2의 경제도약을위해 국민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할때에 정부가 앞장서 노는 풍조를 일으키려한다는 비판도 있을수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우리나라의 공휴일수가 西歐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게아니다』라고 강조。

한편 다른 관계자는『공휴일재조정문제가 일단 국회에 제출된만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小全黨대회로 열 계획

17일상오 民正黨의 中執常任委는 오는 30일 소집되는 中央委전체회의에서 선출할 分科위원장과 운영·특별위원의 人選을 대충마무리하는 한편 創黨후 처음인 이번대회를 「小全黨대회」로 치르기위해 준비를 서두르기도 했다。

3천85명의 중앙위원과 후원회 운영위원 (17명)、사무처요원으로 있다 그만둔 21명의 平生同志회원등 3천3백여명이 참석하는 中央委전체회의는 서울 江東區 可樂洞정치연수원 운동장에서 가질 예정。 그런데 대회장소를 이곳으로 결정한것은 3천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빌기가 어려운데다 만약 비가 올 경우에도 1천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대강당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치르기위한 것』이라는설명。

民正黨은 또 지방위원들을위해 연수원에서 宿食준비를 하고있으나『중앙위원 대부분이 財力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인지 연수원宿食을 지원하는 사람이없다』고。

課標인상대책을논의

民韓黨은 17일 서울市가 建物課標를 30%까지 인상하여 財產稅를 부과했다는 시민들의 불평전화가 각地區黨에 많이 걸려오자 이같은현상이 租稅저항인지의 여부를 판단키위해 우선 市출신의원、지구당위원장、정책연구실장등이 참석한가운데대책을 논의。

이날 회의를 소집한 孫世一서울市黨위원장은『대표없이 租稅없다』는 말을 인용、『방만한 서울市예산이 전혀 국민대표의 심의를 받지 않아 이런일이 벌어진다』면서『최소한 市議會구성전이라도 서울市예산은 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강조。

또 다른 의원들간에도『서울市가 올림픽을 앞두고 地下鐵·漢江개발등 起債가 많은데다 漢江모래도 안팔리자 재정압박을 모면하려고 課標를 너무 올렸다』『과표인상은 부동산가격상승을 더욱 부채질할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간지 발행 축 2주년기념

(창간9주년)

한국일보

교민을 위한

교민에 의한

교민의 벗 일간 한국일보

더욱 교민사회의 등불이 되기를….

●삼복식품 ●제일식품 ●서울동부식품

☎743-8270 ☎532-1054 ☎291-8317

술 너무 마신다

한국人 飮酒量 美·日수준 육박

심각한 社會문제로

관련統計·대책기구 全無상태

국립精神병원 任百仁박사팀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마신다. 알콜중독자 문제로 큰골치를 앓는 룩셈부르크나 프랑스등 세계최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이나 일본사람의 음주량에 육박하고 있다. 술소비량이 생활수준에 비례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술마시기」만 제일먼저 선진수준에 도달한것같다.

지난81년말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인구는 1천7백49만7천명.

이가운데 대량음주자(1일평균(1백50cc의 알콜음주자)는 68만4천4백명이며 이들은 알콜중독자내지 중독예비자임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정신병원 의료부장 任百仁박사팀이 17일 발표한 「알콜중독및 이와관련된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歐美와 일본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알콜중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무시할수없는 위험수위에 와있음이 드러난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연간평균음주량은 64·9ℓ이고 이것을 에타놀(1백%순수알콜)로 환산할땐 6·2ℓ나 된다. 또 이를 음주인구만으로 볼땐 총에타놀은 1인당 13·3ℓ에 달한다.

이같은 모든국민이 하루평균 2홉들이 소주로 4분의1병을 마시며 음주인구만을 볼땐 2홉들이 소주반병을 매일 마시는 꼴이 된다.

이를 이웃 일본과 대비하면 79년의 일본의 평균국민 음주량은 6ℓ, 음주인구만의 평균음주량은 12ℓ로서 우리나라는 거의일본의 수준에 도달해있음을 보여준다.

또 80년기준 세계각국의 평균국민 알콜음주량과 대비할땐 1위의 룩셈부르크(18ℓ) 2위의 프랑스(15ℓ)에는 뒤지지만 20위의 미국(8·5ℓ)에는 육박. 주류소비량의 급증에 미루어 우리나라도 몇년안에선진국수준에 도달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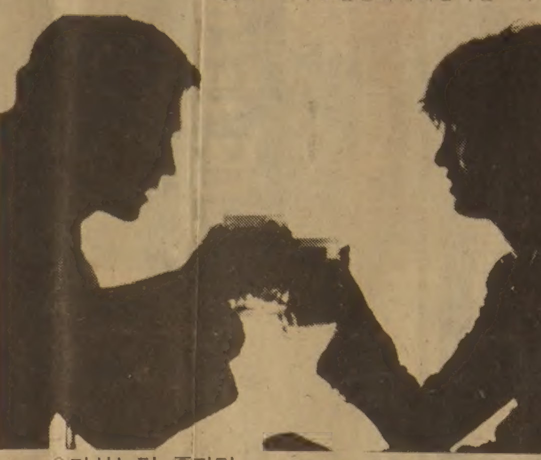
이들 알콜중독자내지 중독예비자는 전인구의 1·8%에 해당돼 일본의 1·6%(79년통계)와 비교하면 거의같은 비율.

보고서는 알콜중독으로 인한 해독으로서간장장애, 범죄의증가, 정신적 현상등을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알콜과 관련된정신장애자의 숫자만 파악됐을뿐 알콜에 관련된 각종 통계현황은 전혀파악되지않았다고 개탄했다.

보고서는 또 대량음주자들의경우 우리와비슷한수준에있는 일본만해도 후생성안에「알콜음료와 건강에관한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선진외국의 경우 국가나 개인이 이끄는 유사한 단체가 알콜문제를 전담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경우 이미 70년에 알콜중독과 예방에관한 관계법령이 마련되었고 이에따라 알콜중독에관한 국립연구소(NIAAA)가 설치되어있으며 80년에 들어와 5천개가넘는 알콜문제의 프로그램이 전국각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있다는것이다.【徐基奉기자】

「알콜中毒」警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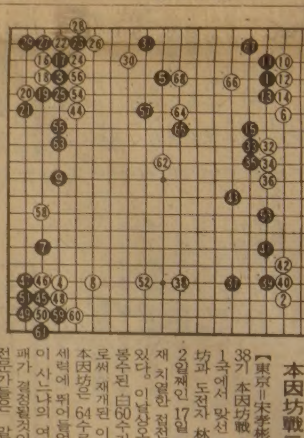


◇마시는건 좋지만… 선진제국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된 알콜중독이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수위를 기록했다. 알콜이주는 해독에 본격적으로 대비할때가 온것이다.

치열한 接戰

本因坊戰도전1局

【東京=宋孝彬특파원】제38기 本因坊戰 7번승부제1국에서 맞선 趙治勳本因坊과 도전자 林海峰9단은 2일째인 17일 하오5시현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있다. 이날상오9시 전날봉수된 白60수가 개봉됨으로써 재개된 이대국에서 趙本因坊은 64수로 우변의黑세력에 뛰어들었는데 이白이 사느냐의 여부에따라 승패가 결정될것이라고 이곳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바둑전문가들은 또 白58과 62수도 의표를찌른 수라고 말하고있다.



제38기 本因坊戰 7번승부제1국 (1~68)
白 本因坊 趙治勳 9단
黑 도전자 林海峰 9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대낮 夫婦찔려 夫人만 숨져

【大邱】17일 하오3시30분께 大邱市西區飛山4洞224 朴點祖씨(52)집에서 朴씨와 처 白點順씨(52)가 흉기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채 신음중인것을 朴씨집 옆방에 세든 노영달씨(40)의 아들 건호군(8)이 발견, 동산의료원으로 옮겼으나 白씨는 숨지고 朴씨는 중태다.

건호군에 따르면 학교수업을 마치고 놀이와 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않아 쳐사고리로 대문을열고 들어가보니 朴씨는 부엌입구에, 白씨는 부엌바닥에 목과 머리등에 상처를입어 피투성이가된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으며 현장에는 피묻은 도끼와 식도가 놓여져 있었다는것.

경찰은 朴씨가 1년전부터 심한의처증으로 부부싸움을 자주하는등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이날도 부부싸움끝에 서로 찌른것이아닌가보고 의식이 회복되는대로 朴씨를 상대로 조사를 펴기로했다.【聯】

도시가스 공사장 放射性카메라

盜難 5개월째 못찾아

지난해 12월10일 서울中區新堂洞192 도시가스배관공사장에서 도난당한 방사성 동위원소 카메라1대가 도난5개월째인 17일현재 오리무중이다.

반사선동위원소카메라는 한국산기공주식회사(사장 白英鉉)가 도시가스배관연결부분을 촬영후 현장사무소에 돌아와 필름을 꺼낸다음 현장작업을 하기위해 노상에 방치했다가 도난당한것.

국산기공은 카메라를 도난당한후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 카메라를 현장부근 전과자, 방사선카메라를 필요로하는업소, 국산기공의 전현직 직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있으나 5개월째 답보상태다.

도난당한 카메라는 방사성동위원소 13퀴리를 저장하고있는데 싯가는 50만원짜리. 이카메라는 동위원소를 장치, 강관의 이음새, 강도등을촬영, 측정하는 기계다.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이 카메라는 분실당시 동위원소의 강도는 13퀴리였으나 금년 1월20일에는 감도가 약8퀴리정도로 낮아진것으로 보고있는데 13퀴리의 인체는 내용물로부터 1㎝거리에 있을때는 치사하고, 10㎝거리에 있을때는 원자병을 얻을수있다고 설명했다.

2살짜리 외아들

失踪 10일째

서울東大門區龍頭洞34의 16에서 생맥주집을 경영하는 李仁鎬씨(37)의 외아들 哲旼군(2)이 지난7일하오 가게앞길에서 실종된후 10일째인 17일현재돌아오지않고있어 경찰이 수사를 펴고있다.

신고에 따르면 哲旼군은 이날하오6시40분께 어머니 李軟任씨(36)를 따라 가게로왔는데 주인 李씨가 잠시 TV를보는사이에 행방불명됐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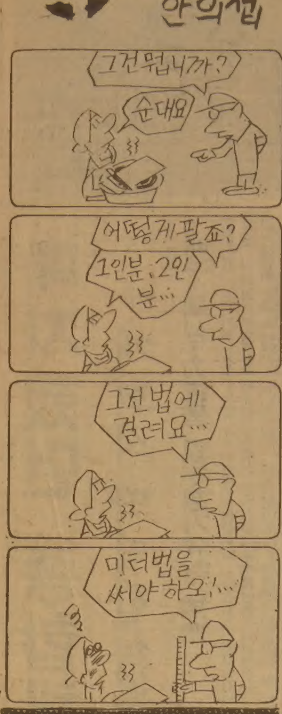
경찰은 李씨의 이웃 洪모양(23·윤락녀·주거부정)이 1개월전 친딸을 양녀로 보낸뒤 哲旼군을 볼때마다『내가 길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지난 5일 세든집에서 이사한뒤 이날 하오 잠시 다녀갔는데도 자신의 옷과 생활도구등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洪양이 哲旼군을 유괴한 것이 아닌가보고 수사중이다.

실종된 哲旼군

人骨에 붉은칠확인 蔚珍 新石器무덤서

【蔚珍=속보】경북蔚珍郡平海邑原浦4里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신라시대 무덤에 흔히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골에 붉은칠(주칠)을 한것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학술조사단(단장 韓炳三)은 17일 상오 11시 현지에서 지금까지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곳에서 발견된 인골에 붉은칠을 한것이확인됐다고 발표했다.【聯】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家庭파괴強盜」에 死刑선고

서울刑事지법 상습추행 일당7명중 3명에

"婦女者 정신적 殺害 엄벌마땅"

대낮 가정집에 침입, 강도를하면서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가정파괴강도 강간범 일당7명중3명에게 사형이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李永範부장판사)는 17일 黃仁奎피고인(24)등 7명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黃피고인과 崔允成(24), 崔成勳피고인(20)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金鎭基(21), 鄭泰洙피고인(20)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黃東奎(20), 張碩梧피고인(21)등 2명에게는 징역7년과 5년의 장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黃피고인등은 지난해12월8일 낮 서울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식유리병, 쇠망치, 과도등으로 주인모녀를 위협, 1천5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뒤 딸(22)을 3명이 차례로강간한것을비롯, 지난해9월부터 12월까지 모두21차례에걸쳐 상습강도·강간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사형, 무기징역과 징역10년, 7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세상에서 가장무거운죄는 살인죄라고 하겠지만 부녀자들의 인격과 명예, 수치심을 한꺼번에 말살한 피고인들의행위는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정신적 살인죄』라고 못박고『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치는 모습이전혀없어 이미 인간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으로 보여져 단기간의 형으로는 인간성의 개조가 불가능하다고판단, 무겁게 처벌치않을수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들은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키위해 강도를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막고 일시적인 희롱을위해 부녀자들을 윤간해왔다』면서『특히 임신5개월의 몸으로 친정에 와있는 딸을 보호하기위해 금품은 모두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무릎을꿇고 사정하는 친정어머니의 애원마저 뿌리친채 윤간을한행위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정과 양심도 찾아볼수없고 잔인성만이 남아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의 범행결과 순결을잃은 여대생이 정신이상을 일으키고 임신부는 남편과 태어날자식을 볼면목이없어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며 울부짖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피고인들이 부모와 가정이있고 밥을굶을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으면서「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힘안들이고 잘살아 보자」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는 정상참작의 여지가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0代고용원 拘束

牧場가정부 殺害

【慶州】속보=경북月城郡見谷面金丈2里54의8 유밀목장 가정부 정옥순노파(68)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이목장에서 노동일을해온 범어리崔모군(14)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崔군을살인혐의로 구속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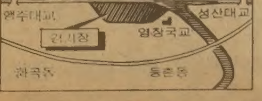
올림픽 漕艇경기장 建設地변경

서울 鹽倉·加陽洞에

올림픽조정(漕艇)경기장이 서울江西區鹽倉洞과 加陽洞일대의 한강변에 건설된다.

정부는 조정경기장을 경기南楊州郡九里邑일대 北漢江변의 31만평부지에 건설키로했던 당초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서울江西區鹽倉洞 鹽倉국교앞에서 加陽洞 加陽山앞까지 3㎞에 이르는 한강제방안쪽 15만여평의 고수부지에 건설키로했다.

올림픽 조정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이지역은 서울시가 현재 楊花橋에서 幸州대교까지 제방및 강변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곳으로 시유지가 많아 건설비가 적게 드는데다 한강개발사업과 병행추진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조경 경기장 건설에소요되는비용은 1백50억원에서 1백억원사이로 추정되고있으며 건설비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조달하고 건설은 서울시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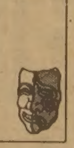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초 건설공사에착공, 오는85년까지 완공해 86년아시안경기때부터 사용키로했다.

올림픽 조정경기장의 건설후보지 변경은 南楊州郡九里邑일대의 후보지가 그린벨트인데다 절대농지가 많아 경기장을 건설하려면 이를 모두 해제해야하는데다 개인토지를 수용하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너구리」

프로야구 三美팀 張明夫투수

「얄미울정도」의 프로根性으로 새바람



거무튀튀한 얼굴에 적당히 얹어놓은 듯한 모자. 실수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흰이빨을 내보이며 희죽웃는 모습.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만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관중석을 휘둘러본다.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의 슈퍼스타인 張明夫투수(33·사진)는 의표를 찌르며 교묘하게 팬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너구리」다. 너무 많이 던지게한다고 짜증을 부리다가도 감독이 이를 걱정하면 오히려『팔은 쓸수록 아프겠지만 머리는 쓸수록 영리해진다』고 등판을 자원,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계약단계에서부터 그의 변덕에 울고웃던 관계자들은 프로스포츠 세계에선 선수들이 인기관리의 방편으로 갖가지 기행을 서슴지않는다지만 프로근성이 몸에 배도 너무나 뱄다고 한탄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은퇴시기를 찾던 그가 고국무대에서 오래살아남기위해 제스처를 쓰는지도 모른다고 점치기도 하지만, 그의 이같은 프로근성은 경기에서도 그대로나타난다. 현재 타격1위이며「타격의천재」란 張孝祚는 두게임에 그와대결 무안타에 삼진2개만당한후『직구를 기다리면 커브, 인코스를 노리면 아웃코스를 파고들더라』며 그의 교활함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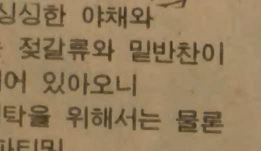
그는 게임때마다 팬들을 즐겁게 해주려는듯 적당히 얻어맞아가면서도 중요한 고비에선 타자의 심리를 철저히 뒤흔드는 투구로농락, 현재9승3패1세이브로 최다승부문의1위를달리고있다.

그는 2년째를 맞은 한국프로야구에「새바람」을 불어넣고있는것만은 틀림없다는 중평. 지난1월 1억원에 계약을 마친후 구단측에 한국타자들의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고, 선수가 부족하니 위험한 2루 슬라이딩은 되도록 규제하자고 건의, 구단이 이를받아들였다. 그는 교활하게 보일지 모르나 꾸밈없는 노력도 한다는 양면성을 지녔다.

한국선수들도 지난12일 해태와 대전때 빈볼(일부러 타자몸쪽에 던지는 위협구)을 던진후 보도진앞에 나와 모자를 벗고 소녀보다 더 애교있게 웃던 그의 프로근성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方鎬剛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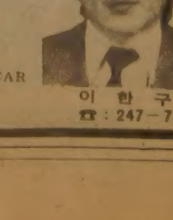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쿼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CHINA HOUSE Bloor Keele Bathurst Bay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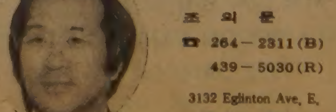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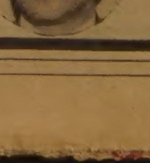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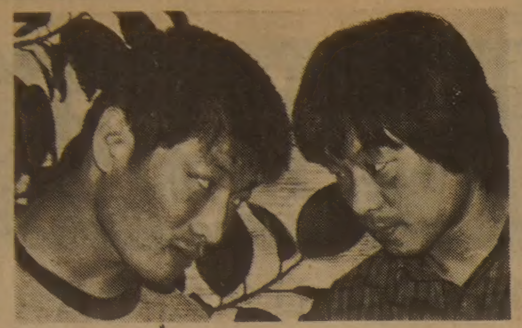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체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636-0906

가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국내最大 파이트머니 받는다
朴鍾八、2천5백만원
29일 羅慶民과 미들급 東洋타이틀戰


◇조심해 타이틀전을 앞둔 챔피언 朴鍾八(右)과 도전자 羅慶民。

국내프로복싱 중량급 강타자 朴鍾八(23)과 羅慶民(28)이 29일하오 문화체육관에서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미들급 타이틀전을 갖는다。

이경기는 당초 논타이틀전으로 벌어질 예정이었으나 羅慶民이 OPBF미들급1위로 올라 타이틀전으로 변경됐다。

이번 대전에서 챔피언 朴鍾八과 도전자 羅慶民은 국내 OPBF 타이틀전으로는 가장많은 2천5백만원과 5백만원씩의 파이트머니를 각각 받게된다。

지난 77년 柳濟斗-林載根간의 라이벌대결때 柳가 1천만원、林이 5백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었다。

朴鍾八과 羅慶民은 타이틀전에 앞서 17일 세종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朴은 『스피드와 체력면에서 내가유리하다。羅는 나이가 나보다많지만 프로경력에서는 내가 선배다。일찍경기를 끝내겠다』며 승리를 장담했다。

羅慶民은 『朴은 파이터도 아웃복서도 아닌 어설픈복싱을한다。5라운드이전에 승부가 날것으로 본다。5라운드이상 가더라도 체력을 안배、승리할수 있다』고 응수했다。

朴은 28승(27KO)1무2패를 기록하고있으며 羅慶民은 11연승(11KO)。

朴은 오는7월 WBA 6위인 흑인선수 제임즈·숄러와 세계도전전초전을 가진뒤 마빈·해글러에게 재도전할 계획이며 羅도 朴을꺾으면 美國으로 건너가 세계도전을 노리고 있다。

國民大 유도팀創團

國民大유도팀 창단식이 17일하오2시 많은 유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國民大강당에서 거행됐다。 國民大는 유도 이외에 축구、농구팀을 갖고있다。 國民大는 지난13일 끝난 회장기 단체유도서 준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國民大 선수가운데는 黃光勲 金鍾峯등 청소년대표선수가 포함되어있다。

海外스포츠話題

복서의 漫畫人生
왕년의 鐵拳 이시마쓰 自叙傳펴내

『환상의 펀치』로 프로복싱 세계라이트급 타이틀을 5차례 방어했던 가쓰·이시마쓰(石松)。(사진) 『이 바보야、좀더 잘할수 없어』하는 고함소리를 등지고 연예계수업을하던 이시마쓰가최근책을써냈다。 『전부 내가 썼읍니다。8할 정도 완성했읍니다。4백자 원고지로 3백장정도 입니다。믿어주십시오』 책의 이름은 「인생 타이틀매치」。

복서시대、트레이너 시대、예능계를 거치면서 느낀 점을 솔직담백하게 쓰고있는 책의 내용은 포복절도할 이야기로 가득차있다。 『이것은 나의 체험을 통해 얻은 인생교훈이다』 동생의 싸움을 도와준8명을 모두 KO시켜 유치장에 끌려간일、타이틀전을 눈앞에 두고 체중을 줄이려다 쓰러졌던 복서시대의 에피소드도 실려있다。

포복 절도할 얘기 가득 차
복싱에대한 짙은사랑 깔려

그의 인생은 만화적이었다。책을 냈다는 사실이믿을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초판은 1만5천부。그는 인세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한 계단을 쌓기 위해 글을 쓰고있다고 말한다。

그의 또 하나의 꿈은 로키와 같은 복싱영화를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것。현역을 은퇴해서 영화배우수업을 시작했을때부터의 목표였다。『현재의 나로서는 매우 무리한 이야기지만 기획 구성등을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때가 올것으로생각한다。이번에 낸 책도이 꿈을 성취하기위해서다』

타이틀매치 한경기서최고 6천만엔(한화1억8천만원)을 번 이시마쓰가 은퇴후 창피를무릅쓰고단역으로 출연했다。섹스색채가 짙은 영화에도 모습을 나타냈다。

『어릴때부터 배불리 먹지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한다』는 욕을 먹었던 이시마쓰。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복싱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다。

『14년간 복싱을 했다。복싱을 했기때문에 지금의 내가있다。책을 읽어보면 감동을 받을것 이다』고 이시마쓰는 자신만만 하다。

49년 6월5일 도찌기(栃木)현에서 태어난 이시마쓰의 본명은 스즈끼(鈴木有二)。1m71、78kg。슬하에1남1녀를두고있다。

그가 복싱을 시작한것은 17년전 요네꾸라 체육관에 입문했을때였다。72년 동양라이트급 왕자가 되었고 74년4월 멕시코의 곤잘레스로부터 타이틀을 빼앗아 WB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었다。76년5월 푸에르토리코의 헤수스에 패할때까지 타이틀을 5차방어에성공했다。78년6월 은퇴。51전31승(17KO)14패6무승부。그사이 약 2억엔(한화약 6억원)을 벌었다。【閔炳宅기자】

◇선수단 명단 ▲감독=李相久▲코치=李亨萬▲선수=白長甚(비봉고)金容撤(경상고)徐東英(대전체)文鎔宣(경신고)羅最甫(영신고)宋在一(영신고)具滋龍(비봉고)黃光勲(계성고)金鍾榮(계성고)金泰秀(경신고) 美淑 金希宣

美전지훈련 파견 육상선수단 확정

대한육상경기 연맹은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美國 서부지역에 전지훈련에 파견하는 대표선수단16명(임원3、선수13)을 확정했다。

◇선수단명단 ▲코치=金潤祚 金炳起 具本七▲선수=張在根 崔容準 尹泰根 牟明姬 南英愛 鄭成國 申伊植 李栽福 金鍾鉉 梁殷寧 金福柱 金

요트常備軍 내일부터 東草해변 선발전

제6회 봄철요트대회겸 국가상비군선발전이 19일부터 22일까지 東草해변에서 열린다。대회종목은 남녀OK딩기、스나이프、엔터프라이즈、옵티미스트、윈드서핑등 4종목。요트협회는 이대회 성적을 토대로 86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상비군을 편성、강화훈련을 실시할예정이다。

전국少年體育大會 21일 全州서 개막
“올림픽 꿈나무 나와라”
폐지했던 「종합채점」 부활
개회식 딱딱한 行進피해 자유롭게
배구·복싱·力道등 일부경기규칙 補完

『선진질서、선진체전、선진조국』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1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1일 全州공설운동장서 개막、全州 群山 裡里서 25일까지 분산개최된다。

이번 소년 체전서는국교부 10종목、중등부 23종목 경기가 펼쳐지며 중등부서 복싱、역도、근대2종、국교부서 육상50m、수영50m、씨름이 시범종목 경기로 열린다。

시도간의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폐지되었던 종합채점제가 부활되었으며 성취상、질서상이 신설되었다。

또한 개회식 입장때 딱딱한 행진을 탈피、자유스럽고 부드럽게 행진토록했으며 「우로봐」 대신 모자나 손을 흔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1개코스로 봉송되던 성화도 경주-청주-춘천-서울-수원-대전-전주코스、경주-부산-마산-순천-광주-남원-전주코스등 2개코스로 봉송되며 소년체전과 분리실시되던수영이동시에개최된다。

세계주니어신기록 및 타이기록 수립선수는 대통령표창、한국신기록수립선수는 체육부장관표창、대회신기록 수립선수는 대회장표창이 주어진다。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한국스포츠로서는 이번 全州소년체전은 의의가 크다。80년 제61회 전국체전을 치른바있는 全北은 소년체전에대비、지난3월부터 도시정비 작업에 피치를 올렸고 14종의 꽃1백만그루를 재배、가로와 도시공간을 원색화원으로 꾸며놓았다。

全州공설운동장 트랙에 우레탄 공사를 했으며 群山에 3억5천만원을 들여 테니스코트를 신설했다。全北은 이밖에도 4억6천만원을 들여 각 경기장을 보수했으며 국제규격의 사격장을 신설、泰陵종합사격장에 뒤지지않는 시설을갖추었다。

全北은 소년체전과 병행해서 각종문화행사를 벌이고 지방고유의 민속판소리 춘향전을 현대식 오페라로 편곡、선보일 예정이다。문화행사로 경축시가행진、농악대、가장행렬이 펼쳐지며 豊南鐘타종、불꽃놀이도 펼쳐진다。

이번대회에는 在日동포를 비롯、14개시도서 1만3백78명이 출전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배구、복싱、역도등에대한 경기시행규칙을 일부 보완했다。

배구의경우 2m10으로되어있는 현재의 네트높이를 2m로 낮추는 동시에 속공、페인트공격등 지나친 기교플레이를 제한키로했으며 볼의무게도 2백40g에서 2백10g안팎으로하고 어택라인을 3m에서 2m70으로 단축했다。

복싱의 경우 2분3회전을 1분30초 3회전으로로 시간을 단축했고、글러브를 8온스서 12온스로 늘리고 헤드기어와 급소보호용구 착용을 의무화했다。또한 10초이상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 선수에게는 RSC패가 선언된다。

역도의경우 무리한 체중감량이 어린선수들의 성장발육에 타격을 주게되므로 체중감량을 엄격히 금지키로했다。따라서 평소체중으로 참가신청을 해야하며 경기후 계체량을 실시、경기전 보다 1·5kg이상차이가 나면 경기기록을 몰수당하게 된다。

◇골을 향하여 백진의 기민한 오픈플레이로 仁川體大를 압박하던 檀國大선수가 득점지역을 향해 맹렬히 달리고있다。

너무 이겼다
檀大、仁川體大눕혀 24-3
韓·英修交기념럭비

韓·英수교1백주년기념럭비대회이틀째경기가 17일 오류동 전용구장에서 열려 백진의 기동성과 포워드의힘이 앞선 檀國大가 仁川體大를 24-3으로 대파했다。

檀國大 임병권은 전반10분께 오픈플레이끝에 나온볼을 트라이에 성공시켜선취 4점을 기록했으며 전반에 또다시 트라이를 성공시켜 10-0으로 초반승기를잡았다。

仁川體大는 후반서 14점을 허용한뒤 박정호가 상대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3득점、영패를 면했다。

◇제2일 전적
단국대 24(14-0 10-3)3 인천체대

533-2361

張吉山 〈174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3)

『이거 뭐 날씨가 더워서…』

『그래두 담 밖이 지척인데 방에 들어가 두런거리는 게 낫지』

정원태가 말하였고 황회가 영걸이에게 일렀다。

『애 너 담밖에 가서 번두구 앉았거라。밥 먹을때 들어오구』

『아니、그럴 필요 없소이다。시내비골은 모두가 우리 향도들이니 안심은 되오만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방안에 들어가서 둘러 앉지요』

여환이 그렇게말하여 모두들 방안에 들어가 앉았고 모기 나르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으니 시동이가 소리를 질렀다。

『혀수、모깃불좀 피워 [illegible] 고픔 먹어두 모기 잔치 시키는 격이우』

둘러앉으니여환 황회 정원태 김시동 이중길 최영길 길몰손 노인까지 합쳐서 일곱 사람이었다。여환이 의논할 안을 내기를、

『대우(大雨)를 며칠로 잡았으면 쓰겠소?』

하였으니 대우란 군호로서 그들의 거병을 의미하였던 것이다。정원태가 말하였다。

『칠석날 뒤라면 너무촉박한 것 같소이다。강원도나 해서의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겠지요』

『좋은 생각일수록 오래두고 썩히면 낭패가 되고 맙니다。이제 우리의 세도 늘었고 말도 번다하게 오갔으니 어서 해치워버려야 기찰에도 걸리지 않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가 있소』

정원태가 다시말하였다。

『날짜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타협을 보았읍니다。군사발동의 삼세한 계획은 기밀한 것이라 내혼자 함부로 발설할수는 없으나 진작에 해서와 강원도의 강병을 은닉포치하여 두고 있소이다。넉넉잡고 앞으로 달포면됩니다。중요한것은 우리가 일반백성들을 얼마나 동원할수가 있으냐 하는것이요』

여환이 말하자 정원태가 손을 꼽아 보았다。

『그렇다면 오늘이 유월 열사흘이니 칠월 그믐께가 아니오?』

『그렇지요』

여환이 짧게 대답하자 황회가 덧붙였다。

『스님 생각으로는 미리 성중에 들어가있던 일부 병력과 바깥 병력이 그믐밤에 훈련원 마당에집결하여 일제히 궁궐로돌입하자는 것입니다』

잠자코있던 중길이가 물었다。

『군사는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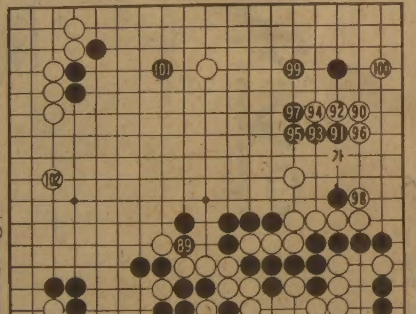
『강원도와 해서의 군사를 합하여 천여、검계 살주계의 계원들 백여명、그리고 양주의 일대가 삼백여명 도합 이천은 될것이고 일단 성사되면 한양 성내의 노비와 장사치와 백성들은 모두 우리 편이 될게요』

황회가 자신있게 말하자 중길이가 머리를 천천히흔들었다。

『조련도 못받은 이들이 경군이 지키는 궁궐을깨트릴 수가 있을까?』

名人戦
제14기

第16局 第7譜 85~102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 奉 洙 〈3勝1敗〉
黑 (4段) 李 相 徹 〈1勝3敗〉



行次뒤에 나팔

白86까지로 하변黑5점이 떨어진것은 치명적인 손실이었다。『망했구나』李4단의 한숨섞인 독백이다。 그리고 4분가량정신을 다듬더니 黑89로 중앙黑의 안전을 꾀했다。

이제까지 무리한 싸움을 하다가 크게 다친 때문에 갑자기 조심을 부린것이겠지만、지금편에서는 너무 한가롭지 않을까。좌우간 그럴 때가 아닌것이다。

『89는 黑「가」로 뛰어 놓고우측白대마공격에 주력하여 세를만회해볼 찬스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白이 선수를 잡고 90에 걸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徐7단은 승리의길을 훨씬 편하게 달리게 되었다。

뒤늦은 黑91은 말하자면 「행차후에 나팔부는」 격。白은 유유히 92이하 98。 그리고 다시 100에 달려 알맹이를 한껏 도려내며 큼직이 살아버렸다。黑이 먼저「가」에서부터 우변白을 공격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실리를 앗기지는 않았을 터인데 여기와서 새삼 89의 죄가 두드러지는 느낌이다。

다만 李4단으로서는 최후로승부를 걸만한 곳은 있었다。다름아닌 상변에서 黑101로 육박한 수。

좌상의 黑무는 엷어있더라도 95이하99의 세력과 호응하여 상변을 몽땅차지할 요량이다。이에 대해 徐7단은 설령 상변을 포기해도 넉넉하다고 白102로 큰곳에 선착한다。【一凡】

땅끝에서오다 〈59〉
길 잃은 새 ⑦

그제서야 영실은 팔 사이에 파묻었던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그이를 찾다니요?』

『영실이、세원이는 실종되었어。리비아에서 출발하여 동경으로 오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리진률상사의 전 세계지사망을 발칵 뒤집어서 찾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는거야。우린 영실이의 도움이 필요해。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수 없지않아?』

『오빠』

영실은 고개를 가로 젓고 있었다。

『리진률상사나 오빠에게는 그 사람이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전…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포기한 여자예요』

『영실이、요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어? 필요 이상으로 양심의가책을 느끼는 것은 자기 모멸일 뿐이야。죽재비인지 제비인지 모르지만 그까짓것、미친개 한테 재수없어서 한번 물렸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야。죽 떠먹은 자리고 한강에 배지나간 자국이야。이세원이를 뭐별수있는놈일 아? 그녀석도 영국에 가면 영국 여자 파리에 가면 파리 여자한번씩 맛을 안보고 배길것같애? 다그런거야。알고도 모르는척 모르고도 아는척 하며 사는게 인생이야。요는 마음이지。영실이가 이세원이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그것이 중요한거야!』

연설이 제법 유창하게 나가다가 어쩐지 좀 대목이 이상한것 같아서 그는 중단했다。뺏긴 주제에 사랑 강의를하고있다니。어쩌다가 그는 그들부부의 사랑 문제에까지 끼어들게된것인가。

『영실이、그남자의 이름만 가르쳐주고 알리바이가 성립되면 영실이는 사건에서 무사히 빠져나갈수있는거야。아직까지는 수사상의 편의를 내세워서 신문기자들의 입을 막아 놓고 있지만 끝내 영실이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못하면 더이상 경찰에서도버틸수가 없다구。이 사실이 신문에 실려봐。신문뿐만이 아니라 이건 주간지 특집감이라구。리진률산 엘리트간부의 집에서 제비족청년의 변사、협박에견디다 못한 주부가 칼로 찔러…범인은 명문여대 출신의 인텔리 주부…아마 영실이의 친구 몇명도 등장할지 몰라。그 애는 본래 학생때부터 어쩌구 저쩌구…』

『그만 해 두세요。그 모든 수모를 전담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그것만이 상한 제마음을 보상하는 길이에요』

『그건 자학이지 속죄가 아니야』

그에겐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속죄란 말이 실감나고 있었다。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속죄할수 없다는 뜻을 그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준호에게는 어렴풋이 그녀의 마음 먼 구석이 들여다보여지고 있었다。무슨 자학을 해서라도 속죄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있었던 것이다。

『포기는 또 하나의 범죄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거야』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
-UP을 컴퓨터-씨스템(SCOPE)
오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 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일본의 유명가수 토론토에 오다)
고바야시사찌꼬 쇼!!
小林幸子
일자 • 1983년 6월3일(금요일)
장소 • CNE내 퀸에리자베스홀
저녁 (7시 입장. 8시부터 시작)
판매처 •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전화 : 698-0633)

약력—
1954년 도미
세인 존스대학 졸업
콘코디아 신학교 졸업
시카코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획득
뉴욕 콜롬비아 대학
인디아나 VALPARAISO대학
세인 루이스 콘코디아 신학교
워트버크 신학교(현재) 교수등 역임

제1 회 토요강좌 안내
강연과 좌담의 밤
강사 : 강 위조 목사

강연주제 : "기독교도와 막스주의자의 대화"
일 시 : 1983년 5월28일 오후6시30분
장 소 : INN ON THE PARK

위와같이 본회 제1회 토요강좌를 개최코저 하오니 참가하실 분은 조속한 신청을 바랍니다.

회 비 : 1인당 $20(디너포함)
초청인원 : 40명(선착순으로 하고 예정된 인원에 도달하면 마감함.)
연락및 참가신청서 : 뉴코리아타임스사
전 화 : 925-3259, 3250

주최 : 토요강좌를 마련하는 회 후원 : 뉴코리아타임스

通商·스포츠·항공·相互방문등
韓·中共 관계개선 가능

◇李外務、간부들과 답변내용 熟議 국회外務委에서李範錫외무장관(右)이의원들이 질의하는동안 孔魯明차관보(가운데) 金炳連亞洲국장등과 답변내용을 熟議하고있다。

國號사용 承認 아니다
自由中國과 관계소원 對策은
국회外務委、被拉中共機사건 質疑·답변

국회는 16일하오 外務委를 열고 李範錫 외무장관으로부터 被拉中共機의 不時着사건 처리협상과 李장관의 訪美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질의

이날 丁來赫 李榮一 李慶淑(이상民正) 金判述 柳漢烈 許景九(이상民韓) 林德圭(국민) 朴定洙의원(議政會)등은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韓·中共관계 전망은 어떠하며 특히 拉致犯들이 投降할때 정부는 어떤 言質을 준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의원들은 또한 ▲이번사건처리로인해 전통적우방인 自由中國과의 관계소원문제 ▲납치범을 自由中國에 인도할것인지의 여부 ▲韓·中共간의 직접대화 이후 日本이 北韓대표를 정식으로 입국허용하는등의 副作用발생우려 ▲이번사건 처리에대한 北韓의 반응 ▲中共機의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대우는 지나친환대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의 北傀동향과 관련한 미국의 對韓방위 결의와 對韓군사차관(FMS)의 조건과 美의회의 통과전망을 물었다。

답변

답변에나선 李範錫외무장관은 『韓·中共상호간의 國號사용은 의의가 있으나 默示的승인으로 간주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自由中國대사의 면담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납치범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국내법에의한 재판을 받게될것이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납치범을 中共에게 무슨 언질을 준바는 없다』고 말하고 『自由中國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盧載源차관은 답변에서 『이번 접촉을 계기로 韓·中共양국간에 통상、스포츠、항공、상호방문등 비정치적분야의 관계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상황과 여건을 보아 추진되어 나갈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孔魯明 제1차관보는 『우리측은 헤이그협약등 국제법규를 준수한다는 측면과 對外이미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中共대표단의 入國에 따른 대표단의 구성문제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李範錫외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韓·中共양측이 이번에 발휘한 상호협조정신으로 앞으로도 양측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비키로 한것은 장래에 있어서도 접촉가능성을 示唆한것이며 이는 앞으로 양국관계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中共대표단이 직접 서울에와서 우리정부대표와 對坐하여 최초의 공식회의를 가졌고 공식文書가 교환되었으며 양국대표가 署名한 覺書에 양국의 정식國號가 처음으로 사용된것 역시 그나름대로 의의가 있는일』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撤軍 協定
오늘 美·이·레 調印

【네타냐(이스라엘) AP UPI=聯合】이스라엘·레바논및 미국대표들은 15일 이스라엘북부휴양도시 네타냐에서 제37차 레바논주둔 外軍철수협상을 열고 협정문안작성을 끝냈으며 빠르면 17일 역사적인 철군협정조인식을 가질것이라고 이스라엘 외무성대변인이 발표했다。

아비 파즈너 외무성대변인은 3국대표들이 이날 6시간동안 계속된 회담에서 영어·불어·히브리語·아랍語등 4개국어로 마련될협정문안중 미결상태로 남아있던 불어와 아랍語협정문안의 자구수정작업을 끝냈다고 말하고 이제 협정조인만이 남아있을뿐이라고 밝혔다。

파즈너대변인은 16일 개회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회가 철군협정을 승인할 경우 17일 협정조인식이 거행될 수 있다고 말하고 조인식은 지난 5개월동안 협상이 열렸던 레바논의 할데와 이스라엘의 키리아트 시모나에서 같은날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企劃院
88년 GNP (1人當) 2천5백弗
국민총생산 1千億弗 전망

경제기획원은 16일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88년에 우리나라의 GNP(국민총생산)규모가 1천억달러에 달하게되고 1인당 GNP는 2천5백달러가돼 선진국이 될수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선진조국창조와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올해부터 88년까지 6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5%의 실질성장을 이룩、88년에는 GNP총규모가 82년 가격으로 1천억달러、1인당GNP는 2천5백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인 면에서의 이같은 성장과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①오는 86년까지 국제수지가 적자없이 완전한균형을 이루게되고 ②수입자유화율은 86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90%이상이되며 ③외자도입에 의존치않고 투자재원의 완전자립이 이룩되며 ④금리 환율 가격자율화와함께 공정거래제의 정착으로 자율 개방체제가 정립되는등 조건을갖추어 88년이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실현될것으로 전망됐다。

◇全斗煥대통령이 도미니카聯邦의 메어리·유제니아·찰즈수상에게 光化大章을 주고있다。【崔東完기자찍음】

"教育환경·改善에 力點"
全대통령、교육공로자 1백42명초치·격려

全斗煥대통령은 16일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맞아 표창을 받은 池圭仁씨(58·서울孔德國校교사)등 교육공로자 1백42명을 청와대로 초치、만찬을 베풀고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교육은 한나라의 興亡盛衰를 좌우하는 열쇠라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한편 교육여건의 개선과 質的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는 연구와 修養으로 자기향상에 힘써 학식면에서는 물론 인격면에서도 학생들이 따르고 본받을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도 교육자여러분의 교육활동을 돕고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힘쓰는 한편 특히 財政형편이 허용하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장관 柳炯鎭 대한敎聯회장이 배석했다。

도미니카聯首相에 修交훈장

全斗煥대통령은 16일 상오 청와대에서 도미니카聯邦의 메어리·유제니아·찰즈首相의 예방을 받고 修交훈장 光化大章을준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오찬을 베풀었다。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다같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우선 도미니카가 갖고있는 우수한 山林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분야기업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印下院議長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인도의 발·람·자카르 下院의장 일행8명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개발도상국들은 南南협력을 더욱 긴밀히해 나가는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일이며 韓·印양국은 앞으로 기술분야등에 있어 서로보완해나가면 멀지않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名칼럼 메아리

筆陣이 바뀌었읍니다

오늘부터 劉榮鍾·鄭達泳 편집위원 執筆

社告

◇劉榮鍾위원

◇鄭達泳위원

한국일보의 名칼럼 「메아리」의 필진이 17일자부터 바뀌었읍니다。金聖佑·金昌悅전編輯委員의뒤를이은 새 고정필자는 劉榮鍾·鄭達泳 두編輯委員입니다。「메아리」는 작년7월 記名式칼럼으로 개편된이래 날카로운 視覺과 유려한 필치로 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왔읍니다。새 필자 劉榮鍾편집위원은 서울大文理大철학과를 졸업、1958년 한국일보에 입사한이래 편집부장、문화부장、편집국차장、일간스포츠편집국장을 거쳐 지금까지 論說委員으로 있으면서 社說과 「地平線」을 통해 깊이있는 論評을 해왔읍니다。鄭達泳편집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 독일어과를 졸업、1962년 入社한이래 사회부장대우、문화부장、편집부국장을역임했으며 「하늘의길 땅의길」등의 기획물을통해 개성있는 문장력을 보여왔읍니다。새 필진에 독자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社

◇本社辭令

一、任 한국일보社顧問 千寬宇
一、任 理事 第1副社長 張在國
命 코리아타임스·週刊한국·月刊擔當社長兼 한국일보수석副社長
一、第2副社長 張在根
命 日刊스포츠·소년한국일보擔當社長 理事兼 東京支社長 金忠漢
命 廣告擔當副社長
一、業務理事 裵成煥
命 日刊스포츠擔當副社長
一、編輯理事 權赫昇
命 한국일보編輯·總務擔當常務理事
一、總務理事 張賓泰
命 業務·工務擔當常務理事
一、企劃理事 高奉鎭
命 企劃擔當常務理事
一、한국일보編輯局長 曺斗欽
命 日刊스포츠擔當常務理事
一、論說顧問 朱孝敏
命 理事兼論說顧問
一、論說主幹 尹宗鉉
命 理事兼論說顧問
一、百想紀念館長 孫一根
任 理事
一、總務局長 金重寬
命 總務理事兼事業本部長
一、한국일보廣告局長 李昌永
命 廣告擔當理事
一、소년한국編輯局長 金秀男
命 소년한국擔當理事
一、工務局長 李[illegible]和
命 工務擔當理事
一、코리아타임스編輯局長 劉[illegible]演
命 코리아타임스擔當理事
一、企劃室長 文恩模
命 企劃擔當理事兼 企劃室長
一、出版局長 李景成
命 理事待遇
一、業務2局長 張元澤
命 理事待遇
一、姉妹紙廣告局長 李仁鎬
命 한국일보廣告局長·理事待遇
一、日刊스포츠廣告局長 裵英夫
命 理事待遇
一、秘書室長 文顯奭
命 理事待遇
一、綜合調整室長 裵峰輝
命 理事待遇
一、工務副局長兼鑄造部長 張準榮
命 工務1局長
一、工務副局長兼製版部長 李完俊
命 工務2局長
一、總務副局長兼資材部長 張天榮
命 總務局長
一、經理副局長兼資金部長 朴商珍
命 經理局長
一、한국일보廣告副局長 金佑經
命 姉妹紙廣告局長
一、大阪支社長 李鍾成
命 東京支社長
一、編輯委員 金昌悅
命 論說主幹
一、編輯委員 金聖佑
命 한국일보編輯局長
一、코리아타임스編輯局次長 方台[illegible]
命 코리아타임스編輯局長
一、日刊스포츠編輯副局長 趙海鵬
命 소년한국일보編輯局長
一、統一問題研究所諮問委員 金大洙
命 論說委員
一、論說委員 劉榮鍾
命 編輯委員
一、한국일보編輯副局長 鄭達泳
命 編輯委員
一、코리아타임스編輯副局長 金斗根
命 코리아타임스論說委員
〈以上5月15日字〉

社會漫評

「m法」써야된다…

地平線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부부지만、평생 얼굴을 맞대고 살기란 쉬운일이 아닌것같다。지난2월에 밝혀진 한 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22.1%나 됐다한다。가정주부 4백명중 90명가까이가 마지못해 산다는 얘기다。▼마지못해 살다보면 「같치」 도아흡것이다。법원을 찾는 두통환자의 80%이상이 여자이고、그 주요원인은 가정불화라고한다(국립의료원 신경정신과조사)。가장 많기로는 40대로 40%나된다。이런 현상은 말하자면 「만국공통」이라고 할수있다。영국의 경우 기혼여성의 60%는 남편을 사랑하고있고、3분의 2는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는 태도라고한다。▼올들어 미국에서는 기혼여성의 성생활에 관한 조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한 조사는 기혼여성의 79%가 남편을 속이고 혼외정사를 한일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레이디즈·홈·저널誌)。21%가 그런일이 있다는 것이다。또다른 조사로는 나이에따라 12%에서 24%에 이르는 기혼여성들이 혼외정사 경험을 갖고있다한다(플레이·보이誌)。▼「남녀7세 부동석」이란、한가로운 농촌사회의 윤리였다。숱한 남녀들이 도시라는 좁은공간에 몰려사는 시대엔 현실성이 희박한구호다。따라서 性윤리문제는 대체로公권력이 개입하는 형사문제에서 私的인 민사문제로 다루는 것이 현대문명사회의 경향이고 상식이다。「간통죄」라는 형사법규정이 살아있는 것은 아랍세계밖에서는 아마도 한국이 유일한 예가 아닐까 싶다。▼배다가 『간통했다』는 자백만으로 보강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지난12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간통죄는 워낙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정할수 있다는 논리라고한다。2심판결과달리 대법원은 딴 범죄에 비해 보다 불리한 「유죄요건」을 내세운셈이다。새삼 간통죄의 문제를 재론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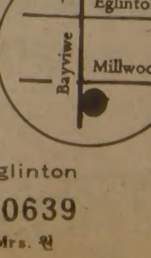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 Mrs. 원

"中共의 歪曲된 對韓觀시정에 도움"

中共被拉機등 國會外務委 錄音

◇被拉機 처리 추궁 16일하오 국회外務委에서 與野의원들은 中共被拉여객기사건처리문제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李範錫외무장관보고=中共여객기를 납치한 6명의 拉致犯은 현재 우리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 中共과의교섭경위를보면문서작성을 둘러싸고 초기단계에서 양측은 합의文書의형식과 國號표기및 拉致犯에 대한 관할권삽입등 내용면에서 異見을 보였다.

즉 우리측은 文書형식으로서 양측수석대표가 서명하는 覺書를 제외하고 각서에는「대한민국(ROK)」이라는 우리의 國號가 표기되어야 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中共측은 문서형식은 양측 수석대표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한형식을 제안하는 한편, 양국간에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정식國號표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납치범들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는 그들이이미 우리 관할하에 들어와있고 회의에서 밝힌 우리의 관할권 행사 방침의 표명에 中共은 자신의 입장을 留保함으로써 默認하는 태도를 보였다.

國號표기는 中共이 電文에도「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고 실제로中共人들이 대한민국 영토에 入國해있다는 사실을 들어 설명하자 결국 동의했다.

이사건에 대해 中共측이 國務院 副秘書長 吳慶彤은 한국측의 협조적 조치에사의를 표명한것으로 新華社통신이 보도했고 人民日報는 沈圖民航총국장이 한국측에 謝意를 표명했다는점을 보도하는등 우리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평가하고있는것으로 분석된다.

北韓은 이에대한 사실보도를 하지않고 있으며다만 北韓·中共간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韓·中共간의 접촉으로 인하여 北韓·中共관계가 손상받지않을까 하는 우려와 초조감을 表出시키고있다.

끝으로 被拉機의 승객승무원 대표단등 백수십명의 中共人이 우리의 경제발전과 자유사회의 분위기를직접 체험한것은 그간 이들이 우리의 참모습을 모른채 北韓을통해 歪曲인식하여 왔을것이라는점을 생각할때 이들에게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계기가 되었을것으로 믿으며 이는 매우 값진 성과의 하나이다.

또 이사건 처리과정이널리 크게 보도됨으로써 우리정부의 人道主義및 평화애호주의 입장과 개방사회의 면모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것은 國威선양에도 기여한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中共여객기 被拉사건보고)

이번 본인이 訪美중 접촉한 미국지도자들은 소련軍事力이 급격히 증강되고있는 현 아시아정세하에서 韓半島내에 또다른 불안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韓半島에서의 무력충돌은 미국安保에도 큰 위협이된다는데 우리와 의견을같이 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對韓방위공약준수 결의를 재차 다짐했고 부시부통령도 北韓정세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미국의 방위공약과 지원의지가 확고함을 재천명 하였다.

對韓군사판매차관(FMS)의 83會計연도 추가요청액과 84회계연도 요청액이 행정부의 原案대로 통과되도록 의회측에서도 다수의원들이 가능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北韓의 끈질긴 對美접촉기도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참여가 없는한 어떠한 對北韓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것은 이문제와관련한 北韓의 오해가능성을 봉쇄시키고 北韓을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있는 南北對話로 이끌어내기위한 배려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訪美결과보고)

中共접촉 서두르지않았나
對美軍事借款조건은 완화

질문 답변

▲丁來赫의원(民正)질의=83년도 미국의 對韓外援추가분 6천만달러와 84년도 對韓군사판매차관(FMS) 2억3천만달러의美議會통과전망은어떠한가. 또 이借款의 利子와 据置및 償還기간등 供與방식도 對이스라엘,이집트와 같이 유리한 공여방식대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가. 中共機피납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 외교진의 능숙한 솜씨로 처리된점을 높이 평가한다.

인도적인 문제가 主가되는 이번사건 처리에있어 우리의 國威가 선양, 국제적지위가 향상되었고 특히 對中共과의 외교교섭이란 긍정적 측면도있지만 우리의 전통우방인 自由中國과의 관계에 금이가서는 안된다. 중공승객에 대한 대우가 지나친 환대라고보지 않는가. 우리 정부가 이번 납치범들에게 투항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언질을 준것은 없는가.

▲金判述의원(民韓)=이번 中共피납기 승객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환대로 그들에게서 정신적,정치적 큰변화를 기대하는듯한 정부의 자화자찬같은 말을 듣고 실망했다. 反共국가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美軍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中共에 대해 일방적인 추파를 던질 필요가 있는가. 헤이그협약에 따른 인도적처리도 승객에 대해 宿食제공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한끼에 3만원이상의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방의失笑를 살 필요가있겠는가.

이번사건의 처리과정에서 日本은 이기회를 이용, 10여명이 넘는 北傀대표를정식으로 入國허용한등 惡用될 소지는 없는가. 우리의 전통우방인 自由中國이 배신감을 갖고 항의를하는등 우리國益에 이롭지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지않는가.

▲李範錫장관답변=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고있는 83년도 對韓군사차관(FMS) 追加分 6천만달러는 美의회내 고위지도자들과 만나본결과 少額통과는어려울것같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FMS차관조건을 이스라엘 이집트와같은 조건으로 해줄것을 과거부터 요청하고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美國의 형편과 인식의 문제로서 단정적으로 전망할수없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83년도 FMS차관의 償還조건이 조금 완화되었고 84년도 차관조건도 개선된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망명이 목적이라하더라도 항공기의 拉致劇을 벌인 국제적 범죄인 경우 우리는 헤이그협약가입 당사국으로 이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협약에 따라 이번 中共여객기의 납치범들을 처벌해야한다.

中共승객에 대한 대우, 너무 지나쳤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이들이 피납된 항공기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겨우 살아남은곳이 대한민국이란것을 고려할때 우리국민들이 가진 특유의 따뜻한 마음이 발휘된것으로 본다. 이들을 위안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한것은 지금까지 이들이 北傀의 歪曲선전으로 잘못된 對韓觀을 고쳐주는것이 우리의 自主개방이라는 기본외교의 百年大計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자유중국으로부터이사건과관련,납치범의 자유의사를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바있다.자유중국도 우리입장을 이해할것으로본다. 앞으로도 자유중국과의 유대강화를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납치범들을 投降시킬때 이들에게 무슨 언질을준것이 없다. 현재 韓·中共간에는 國交가없기때문에 상호간 國號를 사용한것은 의의가있다. 그러나 이를 상호간의 默示的 승인으로는 간주할수없다.

▲許景九의원(民韓)질의=정부의 中共피납기 처리를 보면서 그동안 공들인 反共교육이 아깝다는생각이든다. 정부는 이제 정부가 행동하는 수준만큼 反共法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정부는 외교交涉力을 확보하기위해 亡命處를 찾는 납치자들에게 지나친 냉대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14條와 세계인권규약등은 모두 망명의자유를 보장하고있다.

인권선언등과 헤이그협약의 법칙조항사이에서 생기는 우선순위상의 갈등은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국제법 또는 국제적규약의 국내법적인 입법이 미비한상태인데 兩者사이의 법적인 공백과 미비점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韓·中共사이의 관계증진은 필연적으로 美·日의 北韓에대한 交叉접촉을 증진시킬것인데 그래도 韓·中共접촉을 외교적성과로만 생각할수 있을것인가.

▲柳漢烈(民韓)=한국과 中共간에 교환한 합의覺書의 성격은 무엇인가. 例로서 센투(沈圖)가 「누구를 대리하여…」라는 지위설명이 없는데 각서의 성격이 애매하지 않는가.

中共과의 접촉을위해 너무 서두른점은 없는가. 中共대표의 입국을 승인하기전 납치범과 승객의신원조사를 한다는것은 우리의권리가아닌가. 우리정부가 國交도없는 中共의 被拉機와 승객을 지나치게 환대한것은 아닌가. 우리의 납치범에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그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自由中國의 호칭대로 義士인가.

외무장관의 訪美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성과가무엇인지 제시하라. 말로는 국민외교 云云하면서 모든외교는 외무부 마음대로하는 것은 아닌가.

▲朴定洙의원(議政)=외무부가 전반적으로 잘했지만 부분적으로 서두른감이 있다.

첫째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치못한채 입국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中共측이 民航총국직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면우리는 당연히 교섭상대를바꾸라고 요구했어야 옳지않았나.

사건발생시 우리는 中共이 日本이나 미국을통해중재교섭이 들어올것을 예견했다가 직접협상을 제의해오자 서둘러 응한것이 아닌가.

國號호칭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이며 앞으로 對中共관계개선에 이번國號호칭이어떠한의미를부여하고있다고보는가.

「레바논平和」올것인가

—「外軍 철수協定 합의」의 背景

반년 가까이 끌어오던 미국주도하의이스라엘·레바논간의 레바논주둔 외국군철수협정이 드디어 합의에달해 빠르면 17일 공식조인된다.

레바논사태해결의 선결문제로 등장했던 외국군의 철수가 이번협정의 조인으로「文書上」으로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이번철수협상은 이스라엘과레바논간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며 이스라엘로서는 지난79년 이집트와의 평화우호조약에 이어 아랍국가와 맺은 2번째의 협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협정은 레바논등 북부 베카계속에 주둔하고있는 병력 4만여명의 철군에 시리아가 동의하지 않는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없는 백지장과 같은 것이다.

철군협정의 주요내용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군과 8천~1만2천명으로 추산되는 팔레스타인 무장병력이 철군에 동의하고 철군을개시하는것과 동시에 2만5천명의 이스라엘군도 레바논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추종레바논 민병대세력인하다드소령이점령하고있는 레바논 남부지역에 폭45㎞의 안전보장지역을 설치하는한편 이지역에서 反이스라엘 게릴라의 재출몰을 방지하기위해 1백명이하의 이스라엘군이 가담한 레바논과의 공동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직접 중동왕복외교길에 나섰던 슐츠美국무장관㊨。 그는 철군협정을 성사시키는 큰일을했지만 레바논에서 외국군의 철군이 순조롭게실현될 기미는없다。

따라서 레바논에서의 외국군철수의 실현을 위한 키는 시리아측에 주어져있다.

그러나 시리아는 이번 철군협정을 강력히 거부하고있다. 또한 최근 레바논의 베카계곡을 직접 방문한바 있는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도 16일 철군협상에 반대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각오가있음을 재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군 철수협정은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첫발디딤이란 의미외에는 별다른변화를 가져오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협정은 레바논에「평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반대로「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 노릇을 할 위험마저 있다.

시리아는 지난해 레바논전쟁이후 줄곧 소련의 지원을 얻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고 최근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돌고있다.

시리아는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퇴한 전력을 재건하기위해 소련으로부터 20억달러어치의 신무기를 공급받았다. 美정보소식통들은 소련이 이스라엘영공까지 위협하는 샘5S地對空미사일을 시리아에 공급했고 1백대의 신예미그23전투기, 3백~4백대의 T62형및T72형탱크, 2백대의 장갑차, 6백~8백대의 군용차량등 막대한 양의 최신무기를제공했다고 밝히고있다.

와인버거 미국방장관도 지난13일 전쟁발발위험을 심각히 우려, 소련이 군사고문단이나 훈련요원외에『병력까지』투입하고 있다고밝히고 레바논사태를 에워싸고 소련의 개입증대를 강력히 경고한 바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선례로 보아 이스라엘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시리아의 군비증강을 가만히놓아두지않을것이라는 판단에서 중동전문가들은「여름이오기전에」전쟁이 터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시리아서 同意않으면 白紙확실
자칫하면 전쟁再發위험 소지도

이번협정조인을 중동외교의 개가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는 미국은 결국에가서는 시리아가 철군에 동의하고 나올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은 시리아군을 철수하게하는 압력으로서 이스라엘의 對시리아선제공격을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시리아는 베카계곡에 군대를 계속 주둔 시킴으로써 연약한레바논정부에 압력을 가해 레바논을 자국의 안전보장지역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점은 이스라엘측 속셈과 똑같다. 따라서시리아는 이번 철군협정을 백지화 시키려는 한방법으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성격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공산도 있다.

이번 철군협정조인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紙는『레바논에 평화가 도래하는것을 축하하기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고 논평하고있다.

설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및PLO잔존세력들이 완전히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레바논에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것은 속단이다.

현재 전국토의 4분의1지역도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 제마엘대통령정권이 외국군철수후에 통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제마엘대통령은 좌익 회교도와 우익 기독교간의 고질적인 종파대립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할경우 또다른 내전폭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崔海雲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메아리

꼬리

『독일처럼 숲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곳은 드물다. 나란히 쑥쑥 뻗어 나온 나무들, 그 나무들의 밀도와 숫자는 깊고 신비스러운 희열로 독일인들의 가슴을채운다』

노벨상 수상자인 E·카네티의 관찰이다. 독일인의 상징은 군대용어를빌면「진군하는듯한 숲」이라고 하겠다. 이런 관찰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에서 더욱 또렷해진다.

독일인이 숲속에 있다고 상상하기를 즐기듯, 영국인은 그들이 바다에 있다고 상상함으로 여긴다. 또한 영국인이 스스로를 선장으로 생각한다면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이 투우사임을 기뻐한다. 투우사에겐 찬탄을 터뜨리는 관중이, 선장 아래엔 복종하는 바다가 있다. 카네티는 이러한「군중의 상징」이 민족감정의 차이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견해를 동양쪽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관념적 측면이 강해질것 같다.

중국인은「세계의 가운데」있다는 자부심에 젖어 왔다. 그를「中華」사상이 대변한다. 그래서 다른 주변민족은「夷」의 개념으로 묶어놓았다.

中華의 意志는 중국 고대의 歸化라는 용어에도 비친다. 歸化의「歸」는 中庸에 柔遠人則 四方歸之에 나오듯 歸依한다는 뜻을 담았다. 귀화는 결국 敎化, 德化, 王化에 귀복한다는 것이다(全海宗교수). 中華의 꼬리는 길고 오래다.

「날아든 큰새」격인 중공의「꼬리」가 아직 金浦공항에 닿아 있다. 비상着陸地에서 無賀鳥 신세가 되어, 기체를 분해하는 소동이 벌어지지 않나했더니 쉽게 떠올랐다.

트라이던트機가 떠나가면 중공그림자는 이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대한민국과 중공의 단절은 다시 계속될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궁금하다.

환대를 받고떠난 중공여객들은 이젠 각자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 다시 日常에 젖어있음을 안다.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선물보따리를 풀었을 것이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쎄쎄」(謝謝) 소리도 들려온다.

우리가 알고싶은것은 그들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그려지며 어떤 謝恩의 반응이 돌아올것인가에 있다. 북괴처럼 선물꾸러미를 내던지는 옹졸함은 없었는지도 관심이 간다.

국제관계나 정치같은 次元 높은 문제는 다음 일이라고 생각한다. 섣급한 기대는 갖지 않을만큼 한국인의심장은 두둑해졌다. 우리의「열린 마음」을 본 중공의 변화가 주목거리다.

劉榮鍾【編輯委員】

중공식 공산주의의 변질이 눈에 띈다. 중국민족은 몽고인의 지배를 한때 받았다. 몽고인의 규율은 엄격하다. 被征服者의 입장에서 그들의 규율은 격기 어려운 可恐스러운 것이었다. 假定이 지나치지만, 몽고인이 지배한 中共이라면 그 硬直性은 북괴조차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을까…。중공인의 변화하는 실용적인 반응을 이제 지켜볼 차례다.

특히 만주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는 동포들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 싶다. 친척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전하고픈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은 알고 돌아갔다. 우리동포의 모국방문길이 트인다면 더욱 반갑겠다. 人道의 善意엔 인도의 對應이 당연하다.

큰새가 돌아간 뒤끝엔 작은 소식이라도 전해지기를 조국에있는 가족들은 기대해 본다.

교섭을 벌인 중공대표들은 납치자들에 대해 무슨 권리를 留保하는투의「말꼬리」를 남겼다. 우리는 답례와우호의 반응을 지켜볼 권리를 留保하고 있음을 알려야한다. 꼬리를감추는 트라이던트機가 禮儀之國에대한 회신을 보내는것이 東洋의美德이며 道理다。이런기대조차 자나치다고 그들은 말하지 못할것이다.

記者의 눈

非常離陸과 야유회

모처럼의 편집부야유회 출발시각은 상오10시로 잡았다.

피납中共機가 비상이륙을 시도하는 순간은이보다 두시간반이 앞선7시30분이었다.

『제발 이번 휴일만은빼앗지 말길…』지난5일 어린이날에도 호외를 3판까지 만드느라 자정도 두시간쯤 넘겨 귀가하지 않았던가. 또 8일(일요일)에도 韓·中共회담 진행을 알리는 호외를만들기 위해 저녁 먹을 겨를도 없이 밤10시를 넘겼었다.

그래서 被拉機의「비상이륙」은 별렀던 가족동반야유회 탓도 있지만 그보다 그 비행기속에생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로해서 우리에겐 극적인 사건이 되고 있었다. 더우기 우리나라 高永日기장이 항로안내를위해 동승함으로써 조마조마하기까지 했다.

중공인은 자기네들 비행기를 몰고 가려고 그렇다지만 한국인기장은 왜 그 위험한 노릇을 무릅써야 한는지…。『아마 자원했을꺼야』『가족들은 차마 이륙장면을 못봤을꺼야』등 말도 많았다.

그러나 철조망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듯 비상이륙에 성공하는 장면을 TV로보고는 야유회준비에 이른 아침부터 들떠있던 가족들마저 정말 안도감을느꼈었다.

그런데 한가지、무사히 金浦에 착륙한 被拉機에 동승했던 高기장의 첫마디가 뜻밖이었다.

『처음부터 이륙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활주하다 이륙을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해도 활주로 여유는 충분했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은 극적인 순간의 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실망했겠지만 그 기장의 확실성에의 신뢰와겸손을 대하자 뭣인가 가치있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콜럼비아호의 승무원들이 지구귀환직후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신나하는장면에서모험심과 뉴·프런티어정신을 엿볼수 있었다면 이번 高기장의 겸손에서는『저런 종사원들이 있기때문에 우리민간항공의 안전성이 유지되는구나』를 생각키게 했다.

일년열두달 무대뒤에서 일하는 신문사 편집부원의야유회가 이날그래서 그런지 더한층 즐거웠다. 【權泰益편집부장대우】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中共에 묻힌 獨立鬪士遺骸
故國으로 모셔오자

"被拉機사건계기… 對話의門 트여"

安重根·金佐鎭등 50명 名單 작성
政府에 묘역확인·봉환등을 촉구

관계단체

일정(日政)때 중국대륙으로망명, 조국광복을위해 싸우다 산화한독립투사들의 유택(幽宅)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

조국의 해방과함께 생환한 투사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등 예우를 받았으나 중국대륙에서 숨진 많은 유·무명 독립유공자들은 해방 40여년이 가깝도록 묘소조차 확인되지않고 있는실정.

그동안 光復會,독립유공자협회, 순국선열유족회등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역에 외로이 방치돼있는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기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공여객기 피납사건으로 韓·中共간에 제한된것이나마 대화가트이자 이들 독립운동관계 단체에서는 『독립투사들의 묘역확인과 봉환에힘써줄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기로 하고 순국선열들의 명단작성에착수했다.

관계자들은 『한국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피납승객들을 송환한만큼 중공정부도 같은차원에서 이같은운동에 적극협조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光復會에의하면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명단이 확인된 선열들은 중국본토에 25명, 滿洲에 20명, 시리아에 5명이 각각 안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들가운데서 우선 安重根 朴殷植 申圭植 金佐鎭 申八均 盧伯麟 李會榮 선생등 여덟 巨木의 유해만이라도 봉환 되었으면 하는것이 희망이라고 밝혔다.

安重根의사(1879~1910)의 경우 滿洲旅順형무소에서 日帝에의해 사형이 집행돼 형무소뒤 공동묘지에 묻힌것으로 돼있으나 최근 滿洲를 여행하고 돌아온 일본인들은 아직도 旅順형무소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으나 安의사의 묘는 전혀 확인할수 없었다고 전하고있어 유족들을 한층 안타깝게 하고있다.

또 임정대통령에 추대되기도했던 朴殷植선생(1859~1926)과 임시정부초기 외무총장을 지낸 申圭植선생(1880~1922), 임시정부초대 군무총장을지낸 盧伯麟선생(1875~1926)등 세분은 모두上海에서病死, 2곳의 외국인 공동묘지인 萬國公墓에 안장됐었다. 그러나 중공당국은 오래전 이외국인묘지를 공원묘지로 바꾸면서 외국인들의유해를 수습, 납골당에 안치해놓았는데 독립운동단체들은『이세분선생은외국인이고 또 묘비까지 세웠기때문에 제대로 안치해놓았을것』이라고추측만 하고 있을뿐이다.

한편 金佐鎭장군(1889~1930)은 滿洲에서 고려공산청년회의 金一星과 朴相實에의해 滿洲에서 암살됐으며 李會榮선생(1866~1932)은 滿洲大連에서 日警에체포, 고문을받은뒤 사망했고 또 申八均선생(?~1927·滿洲新興군관학교장)도 역시 滿洲에서 사관생훈련중 土匪의 습격으로 전사했었다.

이세분의 유해는 滿洲의 공동묘지에 각각 안장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여덟분가운데 安의사의 유해부활을 위한 시도가 한때 있었다. 해방후 白凡 金九선생은 1948년 金日成과의 협상을위해 平壤으로가면서 安의사의 조카 偶生씨를 대동하고 갔었다.

白凡은 당시 旅順이 소련의 세력권에 있었던 관계로 金日成에게 安의사유해봉환에 협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金이 이를 거절했다고 白凡을 당시수행했던 鮮于鎭씨(白凡기념사업회이사)가 술회 하고있다.

한편 安의사의 조카인安偶生씨(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는安의사의 유해봉환은 유족뿐만아니라 모든국민의염원일것이라면서 『이번 中共여객기사건을 계기로 이같은염원이 실현될수있는 실마리가 보다 빨리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朴殷植선생의 아들인 朴始昌장군(80·서울九老區始興洞한양아파트)은 『자식된도리를 다하지못해 평생 한이되었다』고 말하고 『현재 적에 위패만 모셔놓고있으나 죽기전에 유해를 모셔올수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申圭植선생의 외손자인 閔泳秀씨(63·서울江南區淸潭洞삼익아파트B동705호)는 할아버지 유해대신 彫像과 유품을 입관시킨채 鄕里 淸州에있는 할머니의 묘에 합장되어있다』고 전하고 『上海를 다녀온 해외동포들이 전하는바에 따르면 중공정부가허조만해준다면 유택확인이 가능할것같다』고 희망적인 견해를 표했다.

【林鍾乾기자】

◇主人을 기다리는 假墓 서울龍山區孝昌園에 있는 安重根의사의 假墓。이웃 노인들이 매일처럼 찾아와 정성스레 묘역을 손질하면서 주인의 유해가 돌아오게될 날을 기다리고있다。

◇비상離陸 성공 불시착 2백33시간만인 15일상오 중부전선 ○○기지를 이륙하는 중공피납기。金浦공항에서 마지막 정비·점검을 마친뒤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中共機 사뿐히 離陸
不時着 열흘만에…金浦서 최종정비

중부전선○○기지에계류중이던 중공피납 여객기가 15일상오7시30분께 이륙에성공, 26분만인 상오7시57분께 金浦공항에 안착했다.

피납기는 이날 짧은 활주로를 최대한 이용, 9백80m지점에서 비상이륙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피납기와같은 트라이던트 기종은 짐을 만재했을 경우 활주로 길이가 2천2백90m이어서 이날의 이륙은 기록적인 것이 될것같다.

피납10일만에 불시착지를 떠난 중공여객기는 임박한 중공행을 앞두고 16일현재 기내의자와 카피트등을 다시 부착하는등 준비가 한창이다.

○○기지를 이륙한 중공여객기는 팬텀기등 공군기 4대의 초계를받으며 金浦공항에 무사히 안착했는데 피납기에는 조종사등 7명의 중공승무원과 항로를알려주기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KAL高永·기장(52)이 탑승했다.

한편 기내에 부착된 주방용구등은 따로 수송할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공승무원들은 피납기를 몰고 갈 기름15톤을 KAL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피납여객기의 귀환항로는 중공교섭단의 특별기가 왕복한 金浦~B86~濟州~아토티~아피토~아카라~上海~北京선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그러나 이비행기가 사고기이기 때문에 중공측에서 비행의 안전을 고려, 金浦~北京간 직선항로를 신청하고 한국측에서 이를 허가할 경우 金浦~靑島~上海의 새로운 노선이 될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객기 被拉사건후
中共교포 첫入國

중공여객기 피납사건이후 중공거류 한국인이 처음 입국했다. 16일하오 4시40분 대한항공 616편으로 입국한 林炳豪씨(83·中共 大連市 西崗區水仙街18호)는 지난15일 大連을떠나 北京~廣州를 경유、홍콩에서 한국여권을 받아 이날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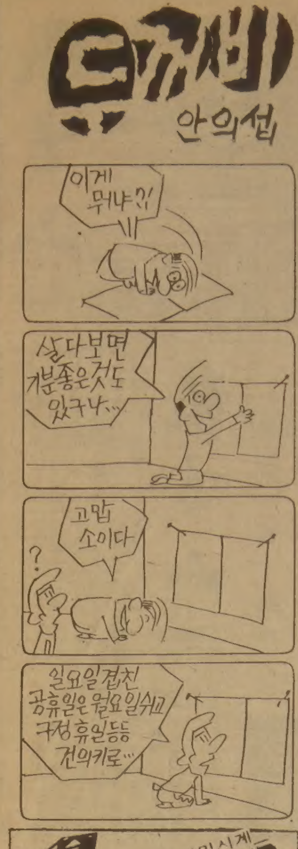
林씨에의하면 사건이후 中共당국의 출국허가 업무가엄격해졌으며 보안검색도 한층강화됐다는것。林씨는부산에사는 아들 榮洙씨(57·회사원·부산南區廣安洞777의28)의초청을받고 관할省에찾아가 출국신청을 했는데 林씨는위낙 고령이어서 쉽게출국허가가났으나 다른 여행희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많이 탈락됐다는것.

咸興이 고향인 林씨는지난 1912년 13세때 부모를 따라 中共에간뒤 3그동안 의사로 일하다가 1년전 은퇴、부인과 4남1녀와 함께 살고있으며 해방직전 잠시 서울을 다녀간 일이있다.

미니버스 추락
3명 사망

【大邱】16일낮12시20분께경남昌寧郡大合面伊方里앞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충북5가1659호 자가용 미니버스(운전사 이영우·35)가 앞차를추월하다 마주오던버스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는바람에 10m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사고로 승객 李윤희씨(40·충북淸原郡梧倉面부덕리)등 3명이 숨지고 禹桂順씨(62·여·〃)등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버스는 이날 숨진 李씨등 같은마을 주민 15명을 태우고 釜谷온천으로 놀이를 가던길이었다. 【聯】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蔚珍서 新石器유적 발굴
사람뼈·돌도끼등… BC10세기 埋葬추정

경북蔚珍郡 平海邑 厚浦里 속칭등기산 발치에서 서기전10세기께의 귀중한 신석기시대유적이 발견돼 사람뼈와 1백여점의 돌도끼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노인정 주변의 조경공사중 작업인부들이 돌도끼(磨製石斧)수십점을 파냈다는 신고를받은 국립중앙박물관조사단이 지난 4월28일부터 발굴에착수한결과 사람뼈 주위에 마제석부 10여점을묻어놓은특이한형태의 매장시설임을확인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신석기유적이 적지않게 발견되었으나 모두주거지였고 매장시설이 확인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적과 20m떨어진 곳에 입구가 막혀있는 동굴이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의 주거지일 가능성이크다. 돌도끼는 대부분 35cm길이이나 그가운데는 길이가54cm나되는 큰것도있으며 길이6cm정도의 돌송곳도 섞여있다.

조사단장 韓炳三관장(慶州박물관)은 이돌도끼들이 無文토기시대에 제작된것과는 전혀다른 신석기시대의것임이 확실하며 돌의재료가 부드러운 粘板岩계통이고 날이무딘점으로 미루어 실용물로 보기어렵고 장례때 무덤속에넣은 儀器일 가능성이많다고말했다.

또 韓관장은 10평안팎의 돌도끼가 발굴되고 부장품으로 토기가 전혀 나오지않은 특이한 장법(葬法)등이 아주 귀중한 신석기시대 연구자료가 될것같다고밝혔다.

東海남부 폭풍주의보
어선 2천여척대피

【浦項】浦項과 九龍浦항등 경북동해안 일대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 浦項―鬱陵島간 정기여객선 한일호와 청룡호의 출항이 금지되고 고기잡이어선 2천여척이 인근항구에 긴급대피했다.

16일 浦項지방 해운항만청과 浦項지구 해양경찰대에 의하면 동해남부 해상에는 초속 14~18m의 강풍과 3~4m의파도가 일어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20톤급 미만 고기잡이어선 2천여척이 근처 항구로 모두 대피했다.

이날 浦項―鬱陵島간 정기여객선 한일호의 출항금지로 鬱陵島에는 주민및 관광객 5백여명이 인근여관등지에 발이 묶여있다. 【聯】

日警、韓國人체포
覺醒劑 밀수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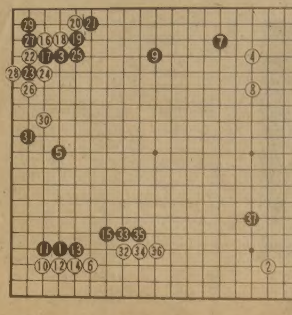
【大阪AP=聯】한 한국인이 시가 5억엔상당의 각성제 1·62kg을 일본으로 밀수입하려던 혐의로 체포됐다고 오오사까(大阪)경찰이 14일 발표했다.

30代여인 피살
어제낮 아파트 안방서

16일 낮12시께 서울中區會賢洞1街 會賢시범아파트503호 李妙珩씨(34·여)집 안방에서 李씨가 흉기로 가슴등 20여군데를 찔려 숨져있는것을 옆방에 세든 차모양(24·공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양에 의하면 이날 李씨집에 채권자라는 남자가 찾아와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李씨가 문앞에서 피투성이가 된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는것.

숨진李씨는 전날밤 외박을 하고 이날상오11시께 귀가했는데 경찰은 貞陵에서 인삼찻집을 하는 李씨가 남자관계가 복잡한것으로 미루어 일단치정살인으로보고 최근李씨집을 찾아와행패를 부리다즉심에 회부된金모씨(57)가 이날상오 아파트 복도에서 서성거렸고 방안에서 金씨의 양복상의를 발견, 金씨를수배했다.



◇제37기 本因坊戰7번승부제1국(1~37) 白本因坊 趙治勳黑도전자 林海峰 〈제한시간9시간·덤5집반공제〉

本因坊戰 개막
趙실리·林세력作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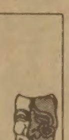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3대기전의 하나이며 가장 전통깊은 每日新聞社주최의 제37기 本因坊戰도전7번승부 제1국이 일본요꼬하마시지 호텔에서16일 막을올렸다. 이번 本因坊戰은 사상처음으로 외국인기사인 趙治勳本因坊과 도전자 林海峰9단사이에 벌어진다는 점에서 바둑팬들의 관심을끌고있다.

돌을 가려 黑을 잡은林9단은 黑1、3、5의 호방한 3연성포석을했고 趙本因坊은 견실한 실리포석으로 맞서고있다. 이대국결과는 17일 하오 늦게 밝혀진다.

「浩然之氣」어디갔나
서울大앞 「일미집」주인 金永淑씨

어느나라건 대학가주변에는 젊음을 발산하는 명소가 있게마련이다. 金永淑씨(56·사진)가 서울大앞에서 경영하는 일미집도 젊음이 영그는 그런곳이다. 金씨가『내뒤에는 서울대생들이 진치고있다』고 호언하고 서울대생사이에 『일미집을 모르는 서울대생은 가짜다』는 말이나도는것만 봐도 虛名이 아닌것을 알수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음식점이 아니다. 넓이 60평에 메뉴라곤 막걸리에 감자탕과 오뎅이전부. 평범한 실비집이다.



초라하지만 언제나 젊음의 열기가 충만하다. 밤마다 진지한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내용이 너무 진해 탁자가 뒤집히기일쑤다. 이때문에 金씨는 집주인에게 쫓겨나 가게를 세번이나옮겨야했다.

金씨가 서울대생들과 인연을맺은것은 서울大가 冠岳캠퍼스로옮긴 75년부터. 金씨의 사상한 서비스에 차차 단골이 늘어났고 金씨는 스스럼없이 찾아와 젊음을토하고 가는 학생들이 좋았다.

"학생은 막걸리도 큰소리도 잘해야…"

이같은 인연으로 金씨는 학생들에게 이끌려 학교축제에도 가보았고, 대학신문은「일미집주인아주머니가 축제에 왔다」고 기사를썼다. 지난 80년초 총학생회장선거에 나선 한후보는 일미집을 근처에있는 冠岳파출소만큼크게 키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어떤학생들은 사귀는 여자친구를 데려와 선을 보이고 『계속 교제해도 괜찮겠느냐』고 조언을구하기도 한다. 졸업후 결혼한 그때의 젊은 연인들이 찾아오는것도 큰 보람이다.

그러나 요즘은 젊음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 졸업정원제에다 과외금지조치이후 학생들의 젊은이다운 활달함도, 그리고 인정미도 멀해진 느낌이다. 이와함께 매상도 뚝 떨어졌고 갈수록 외상장부만 두터워져 지난해에는 7백만원의 빚을 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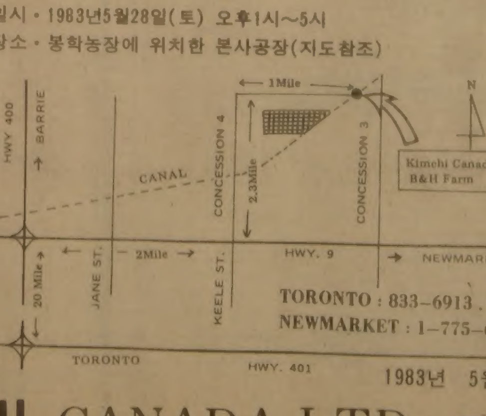
『학생들은 젊은이 다와야지요. 술도 마시고 큰소리도 칠수있어야 합니다. 浩然之氣가 있어야 한다 그말이외다』

【鄭在龍기자】

개업식에 초대합니다

싱싱한 채소와 짭짭한 밑반찬이 입맛을 돋구는 계절입니다.
본사에서는 교포여러분을 모시고 개업자축 리셉션을 베풀고저 하오니 다수 왕림하시어 교민여러분의 식탁을 풍성케 하고저 하는 새 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마련한 소찬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시 · 1983년5월28일(토) 오후1시~5시
장소 · 봉학농장에 위치한 본사공장(지도참조)



TORONTO : 833-6913 . 248-6389
NEWMARKET : 1-775-6256

1983년 5월 일

KIM CHI CANADA LTD 직원일동

저림사 모집에 관한 안내말씀

본사에서는 그동안 저림사 모집에 관한 광고를 여러차례 공고한바 있읍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하오나, 어느 분을 선별할 수 없어서 최고의 솜씨와 기술을 가지신분을 고용하기 위함과 번거러운 절차이오나 우리의 음식을 5만 교민은 물론, 카나다 복합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고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60세미만의 한국계교포
2. 실기일시 : 1983년 5월21, 22일 양일중 10 : 00~05 : 00 (어느때나 오셔서 5가지 저림류및 장아찌류를 손수만들어 주십시요.)
3. 실기과목 : 김치 · 깍두기류및 장아찌류 5가지
4. 자료제공 : 일체의 기본자료를 본사에서 제공함.
5. 심 사 : 약30여명이 만들어 놓으신 반찬을 감미하고 득점순위를 결정함.
6. 고용및 대우 : 최고득점자 2명은 정규 고용하고, 2명은 파트타임 고용함. 최하 $7.00. 최고 $10까지 우대함.
7. 교통편의 : 교통편의를 위하여 5월21, 22 양일간 아침 09 : 00 정각에 JANE SUBWAY에서 본사차량이 대기함. 5시에 돌아옴.
8. 문의전화 : 공장직통 833-6913, 248-6389(밤)

KIM CHI CANADA LTD

張吉山 <1741>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1)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 미륵도를 통하여 짜여지지 않으면 실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실상 살주계가 되었든 검계가 되었거나 모두 미륵 향도들이 니까요』

하고는 여환이 덧붙였다.

『제가 칠성암에 돌아가자마자 논의를 하고나서 거사 일자와 세밀한 체결 내막을 통문으로 돌릴 터인즉, 이곳 파주에서는 송도와 강화 교하의 백사람을 주막에까지 일러 두십시오』

『그게 좋겠구려. 차질없도록 맞추어 나가려면 일을 주도하여 나가는 쪽에서 미리 결정하고 알려는것이 이롭지요. 내 그렇게 전갈하리다』

그들은 이경순네 여각에서 중화를 들고는 곧 강변을 따라서 적성으로 하여 칠성암에 당도하니 긴긴 여름해가 기울어 있었다. 시동의 아비 김돌손노인과 계화의 남편 김승운이 여환과 원향이 쓸 방에 하얗게 도배를 해놓았고, 돌손의 노처는 밥을 짓고 있었다.

여환은 오계손이나 이경순과 언약했던대로 칠성암에 당도한지 며칠 지나서 작은모임을갖기로하였다. 즉 미륵도의 통솔아래로검계와 살주계및 일반백성들의 힘을모아 준비할일과말을일을 분담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도 거사일자가 결정이 안되었던 것이다. 모일 장소는 칠성암으로하지않고 시내비골 시동이네 집으로 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칠성암은 열린산아래녘에 외떨어져있었고 일반 향도들의 출입도 빈번하여 불편하였던 것이다. 계화와 원향이가 인근 사방으로 향도들의 집을 방문하기도하고 암자에서 돈이나 미곡을 시주 받아 기도를 하여 자금을 만들고 있었다. 이미 무진년 봄 부터 계화와 김승운이 여환을 앞세우고 다녀서 누백냥을 모아 두고 있었고 황회와 시동이가 여비로 많이 써버렸던 터였다. 시내비골 시동이네 집에는 김돌손 노인부부와 시동의 형 시금과 그 처자녀가 살았다. 비록 땅뙈기는 얼마 안되어도 김돌손 노인과 시금은 농기에는 남양과 인천 등지로 나가서 해물을 떼어다가 다락원 난전에서 팔아 돈냥을 만졌고, 시동이가 가끔씩 미곡이나 반찬이나 살목을 진에 떼구고 가던 것이다. 시동이가 무슨 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솔부리와 포천을 오가며 고달픈과 황회와 정원태에게서 갖다쓰곤 했던 때문이다. 시동이네는 방이 셋이고소가 한 마리, 닭도 십여마리 되었고, 곡에는 양곡 떨어진적이없어 시내비골에서는 제일 번듯하게 살았다. 시금이는 시동이 보다 다섯 살 위였는데 맏아들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색시 같아서 일찌기 집안 일을 도우며 살았었다. 그가 없었더라면 시동이가 그렇게 일찍부터 집을 뛰쳐나가 부지거처로 뢰배 짓을 하며 살지 못했을 것이다. 시금이는 장가를 일찍 들었고 집안 일로 마음 고생을 많이하여 시동이 보다는 열 살쯤이나 더 먹어 보였다.

모임이 있는것을 알고 시금이는 이웃집으로 나가버렸으니, 그는 미륵도에 관하여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김돌손이 시내비골 상좌라서 그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적에 몇번 참석했을뿐이었다.

張吉山 <174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2)

그는 별반 관심은 두지 않았으나 아우와 아버지가 열심이라 그저 좋게 여기고 있었다. 시내비골에 사는 모든 미륵 향도들 역시 미륵을 믿고 염송을 열심히 하면 백병이 물러가고 가내에 우환이 없다는 믿음으로 염성을 내고 있었다. 시동이네 집에서는 종도사를 비롯한 대면들의모임이 있다하여 안방을 치워놓고 기다렸고, 시금의 처와 노모가 밥을 짓고 닭도 잡았다.

제일 먼저 정원태가 당도하였다. 그는 죽지마에 장을 쓰고 예전 노처사 시절과는 달리 부고의 행색를 하고있었으니, 지난 봄에 영평 삼리 은현촌(銀峴村)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정만일에게서 영평의 부농 이청신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곧 그와

막역한 동무가 되었었다. 이청신네 집에는 향임과아전들이 드나들며 바둑도두고 한담도하여 정원태도자연히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터였다. 그는 자신을 포천 송후정에 객점을 여러 채 갖고있는 상고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영평 있던 살주계원 말림이가 그의 염집에 붙어살며 그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정원태와 시동은 날이갈수록 입술과 혀처럼 가까와졌던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검계의 확대와 그 체결에 함께 골머리를 써왔기 때문이었다.

『섭섭 오시우?』

『응, 날씨덥군. 아직 안왔나 다른사람들은…』

그들은 진작부터 대여넘 자네 어쩌구하는 거추장스러운 말투를 벗어던지고서 넘 아우로 주고받는 처지였다.

『아무도 안왔어요. 왜 만일이 데리구오지 그랬어요?』

『아직 그쪽에는 알리지 말랬다며? 오늘 얘기를 해보고 나서 솔부리쉬구들께도 알려주든지 해야겠어』

『그래 영평 아전놈은어망하던가?』

『응, 그 사람들이야 뭐 다른데 관심이 있다던가. 그저 살이나 봐주고 산쓰는 얘기만 하면 넋을 잃는걸. 참 그래두 재인들이나 장바닥 사람들만한 인물이 없어. 기실 미륵님 도는 진작부터 우리 검계에서 모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정말 용화 향도였지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거사가 일어나면 한양에는 우리를 뿐일 거예요』

그들이 마루에서 얘기중인데 토담 밖으로 누군가 기웃이 넘겨다 보았다. 황회의 머리였고 그 뒤로는 여환의 깎은 머리가 보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서 중길이가 영길이와 함께 삽작 안으로 들어왔다. 시동이는 중길이를 만나는것이 거의 반년만이라 하도 반가와서 두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어이구 이거 얼마만이우. 헤옥렵서 아예 면벽 도통하구 계신줄 알았수』

『도성 출입을 다니느라구 요즈음 바빴습니다』

살주계의 행수 중길은 패랭이에 복집 멘것이 보부상 차림이었다. 영길이도 시동이에게 꾸벅 해보였다. 황회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시동이에게 물었다.

『사념 전거사는 아직 안왔냐?』

『온다구 그랬던가, 하여튼 안왔수』

그들은 가끔씩 목덜미나 팔을 때리며 그냥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자, 들어갑시다』

여환이 말하였으나 황회는 그냥 앉아서 미적미적 하였다.

땅끝에서 오다 <57>

金成一 作 宋龍 畵

갈 잃은 새 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알고있어)

그녀의 당연한 표현인 「우리」란 어휘가 다시,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오고 있었다.

『일요일이었지?』

작년의 9월27일은 야마우찌·스미에가 쉬는 날이었다. 준호는 그날, 꼭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스미에가 기대했던 모처럼의데이트는 엉망이 되었고, 준호는 그일로 해서 지께이의대(慈惠醫大) 부속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처지까지 되었었다. 혈액중의 알콜농도가 지나쳐서 위험상태에까지 이르렀었던 것이다.

『남편은 그때 런던을 거쳐서 오는 길 이라면서 런던·포그의 바바리코트를 선물로 가져왔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할수 있는거예요』

『그외에 뭔가 이상한 행동은 없었어?』

『없었어요. 다만 서울에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외출이 없던 그이가 사흘동안 매일 외출을,했었다는 것뿐…』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처럼 서울에 들어오면 뭐나 바쁘지. 본사와 처리해야할 일들도있고 만나볼 사람들도 많고 본사직원들과 대포도 한잔 해야하고…』

『서울에 있는 동안에 술을 마신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이는 본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피하는 편이었지요』

『아, 정말 그렇군』

『그리고…평소에 그다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던분이 오래간만에 건강진단이나 받아봐야겠다고 했었어요. 그외에는…아시다시피 집에서도 별로밖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받았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서울대학병원일거예요. 거기 동창생인가 누가 의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창생이라면 대학은 아닌것이고 고등학교 이전일 것이다. 준호는 이미 고등학교동창생들중에서 의과대학으로 간 친구들을 머리속으로 헤아리고있었다. 고등학교때에는 입시준비때문에 문과반과 이과반으로 갈라져서 공부를 했었다. 준호는 이세원과 갈라지기위해서 문과반을 지원했었고, 세원은 이과반이었기때문에 의대출신들이라면 이세원쪽에서 더가까울 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준호는 이야기가 너무 엉뚱으로 나간것을 깨닫고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이제 다시 그 동경전화 이야기로 들어가야겠는데…그 전화는 집에서 건것이 아닌 것 같더군』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준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들은 바로는 누군가 남자한사람이 영실이와 함께 있었어』

땅끝에서 오다 <58>

金成一 作 宋龍 畵

길 잃은 새 ⑥

영실은 그제서야 준호가 질문하는 뜻을 알았는지 고개를 들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것이 오빠와 무슨 관계가 있는 일인가요?』

『영실인』

그는 영실의 앞으로 바짝 다가 앉으면서 다그쳤다.

『비록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세원이는 영실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나에게 부탁하라고했어. 그리고 지금 영실이에게는 문제가 생겨 있는거야. 영실이는 지금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영실이가 동경으로 전화를 건 것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소였어.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인 것만 알면 영실이의 알리바이는 성립되는거야』

문 영실은 잠시 상념에 잠기고 있었다. 될대로 되라는듯 싶은 그녀의 막 가는 표정이 조금씩 이성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실이. 우린 이제 어른이야. 낭만적인 비밀 같은 것 가지고 …때는 다지났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야. 우리는 희생당할 필요가 없어. 싸우고 저항해야 한는거야』

『오빠…전…전 글러버렸어요…다 틀렸어요…』

바로 그것이었다. 문 영실이 전화에서 하소연했던 그 사연. 도대체 무엇이 틀렸다는 것인가. 무엇이 글러버렸다는 것인가.

『영실이 도대체 뭐가 글러버렸다는거야? 지금와서 술길 것이 뭐가있어? 살인 혐의, 경찰서, 유치장. 이런것들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어? 뭘

기다리느라고 말을 못하는거야?』

문 영실은 드디어 더 못참겠는지 담배를 집어던지고 팔 속에 얼굴을 묻는 것이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게 좋아요. 더 이상 아무 바랄것도 없어요. 전, 신의 저주를 받은 넋이에요!』

『아무도 버림 받은 사람은 없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버릴뿐이야』

준호는 울부짖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준호 자신에게 대한 절규이기도 했다. 그들은 패배자의땅에 갇히어 서 있는 것이었다.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모든 가치가 엉클어진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돼. 영실이, 그날 밤…크리스머스날 밤에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돼. 목숨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어디있어?』

문영실은 얼굴을 파묻은 채로 대답이 없었다.

『영실이. 아직 우리는 이런 곳에 들어와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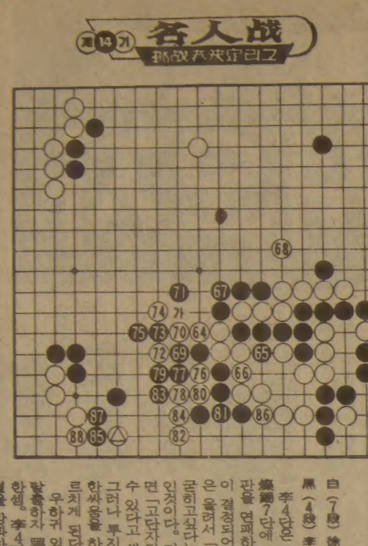
『…저에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유치장이 안전하고 편해요. 전, 여기서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거예요』

형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메모지에다 삼각형만 잔뜩 그려놓고 있었다. 이미 유리창에는 아침이 한창이었다.

『영실이, 영실이의 도움이 필요해. 난 이 세원을 찾아야 한다구…!』

名人戰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6譜 64~88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3勝1敗〉

黑(4段) 李 相 激〈1勝3敗〉

李4단은 첫판을 백전노장 河燦錫7단에 패승하더니 그후 3판을 연패하여 이미 시드組탈락이 결정되어 있다. 최소한 4승은 올려서 「고정멤버」의 자리를 굳히고싶다는 의욕이 넘쳤을 꺾인것이다. 다만 이바둑을 이긴다면「고단자킬러」의 이름은 남길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투지가 지나쳤는지 무리한싸움을 하다가 판세를 크게 그르치게 된다.

우하귀 외곽의 白이 탄이 64로 탈출하자 黑은 공연히 헛수고만 한셈. 李4단은 黑67로 우선 전열을 강화하면서 손 입맛을 다셨다.

禍를부른 과잉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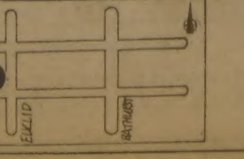
白도 68이 거의절대. 이때 黑69에서 71까지 노타임이었는데 白72로 두점머리를 얻어맞더니 주춤한다. 72는 말하자면 黑73으로 젖지말고 얌전히 78자리를 자일수하라는 명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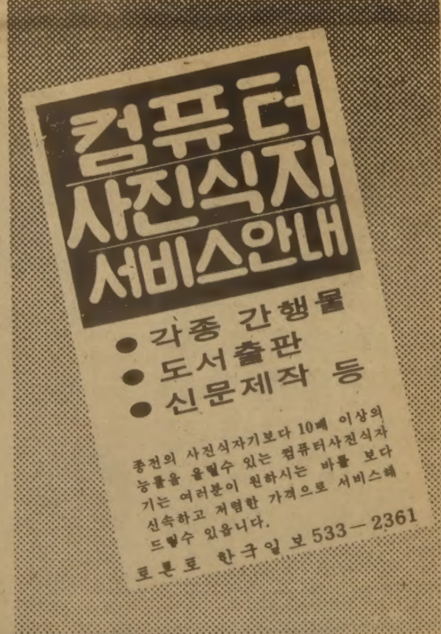
그런데 李4단은 명을 거역하고 대뜸 黑73. 이번에는 徐7단이 잠깐 주춤하더니 白76이하 78까지 세차게 몰아댔다. 미리 얽어둔 수순이다.

아차하는 사이에 黑은 만신창이. 黑79로 80이면 白79, 黑잇고 白도 83의곳을 잇고 스표와 연결된 상태에서 黑은 하변을 후수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白「가」로 잇는 수순이 되면 좌측黑이 허약해진다. 이때문에 숫제 白86까지로 하변을 버리고 좌측을 안정시켰으나 보다시피 참담한 모습이다. 【一凡】

제2회 청소년 예술제

- 일시 · 1983년5월28일(토) 오후7시30분
- 장소 · HARBORD 고등학교
- 가격 : $5(균일)
- 주최 · KUSA
- 후원 ·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





화초 · 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 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화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인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0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Dishwasher 급구함
월~금(AM11:30~PM2:30)전화문의는 2:30이후 요망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1,000마리에 $25
전화 : 766–8876

경험있는 남·녀 동력재봉틀(Power Sewing Machine) 작동하실분 구함.
전화 : 533–7172

주말 버라이어티 스토어
캐쉬어 구함(Etobicoke 지역)
전화 : 231–7944(가능한한 오전중 연락)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영문타자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실 성실한 여자분.
연락처 : 767–1702(오후7시~9시사이만)

도넛숍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Full or Part Time
861–1521(가게), 222–3877(집)

풀타임 웨이드레스 급구함
KATSURA 일본식당
전화 : 960–9035 Mr. Honda

구 직

Store Manager가 필요하십니까?
성심껏 일해드리겠읍니다. 다년간 각종의 Store에서 Manager 경험 있음. Mr.박 530– 1838 오후6시이후 요망.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illegible]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턱숍매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1에어콘디쇼너 매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랙 매매. 전화 : 763–1358.

2 베드룸달린 그로서리스토어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도넛숍 매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버라이어티가게 매매(건물포함)
가족비지네스로 적당.
버링톤지역 전화 : 1–639–7322(Mrs. Best)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건물포함)
주매상 $5,5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딸린 건물매매, Asking $259,0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전망좋은 빵가게 매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릭·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1) 드라이 크리너 매매.
좋은 장비, 매우 좋은 수입.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아스킹 : $13만5천.
2) 레스토랑 150석, L.L.B.O.
좋은 리스, Banquet Eat–in, Take–out 써비스.
아스킹 : $82,900.
Mercury Realty Ltd.
전화 : 492–9031, Waymond Tam.

드라이크리닝(Depot) 매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Grocery Store Business 급매(좋은 전망)
Asking $8,900. Call. Edmund.
Jony Jrustwell Realty Inc. 596–8170

Small Plaza 매매. Variety Store, Pizza, Video Shop 년수입 3만2천4백. 15 Miles Toronto 북쪽
전화 : 1–519–941–8318(5시 이후)

스토아 매매. Asking $39,900+Stock
Kingston Rd.×Markham(Scabro.)
전화 : 267–2292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리스 5+5년.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0–0539(오전9시–오후9시)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아스킹 3만5천+스탁. 리스 2½+5년.
Rent 월 $500. 주매상 $3,500보장. Video 머쉰있음.
전화 : 469 –1521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uck Shop 매매 (옥빌지역)
년매상 17만불. 권리금 290,000+스탁.
연락은 오전10시30분 이전 또는 저녁8시이후 요망.
전화 : 844–5719

아파트, 가게달린 빌딩 매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피아노, 소파, 디쉬워셔, 월유닛 매매원함.
전화 : 661–4581

도시생활에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맑은 공기와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해답이 있읍니다.
써비스 스테이션–레스토랑–New 3 bedroom home
1/2 Million in Sale. asking : $22만5천
전화 : 705–636–5952(오전10시~오후4시)

매트리스가게 매매. 낮은 렌트.
가게가 크고 건조지하실 있음. Bloor & Christie
전화 : 531–1730(오전10시~오후2시) or 656–576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주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위치좋은 장소에 있는
아이스크림 도나스 숍 매매
전화 : 466–3995 Asking Mr. Lee

그로서리 Store 매매. 주매상 $7천($1만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50Km. 전화 : 1–852–7907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솔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진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illegible]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선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